기존 동관기와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목재건물의 수명을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080-023-4000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2월 15일 수요일 (주간)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법구경〉

법회 안내

원각사 (02)763-5214
신도법회 매월 1일(음)
참아정진기도 매월 7~8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가족법회 넷째 일 오전10시

법운포교원 (02)889-4003
학생법회 일 오전10시30분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거사림법회 첫째, 셋째 오후7시
가족법회 첫째 일오전10시30분
학생회등문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0시30분
신중기도 매월 3일(음)

삼화포교원 (02)847-4809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2시
보현회법회 매월 8일(음)

삼보사 (02)352-6404
기초교리 매주 수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청소년법회 매주 일 오후1시

관음사포교당 (0391)43-2985
입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화, 목 오후7시
대학생법회 매주 수 오후7시
고등학생법회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일 오전9시30분
거사림법회 셋째 일 오후5시
여교사불자회법회 매월 1일 오후5시

인천 능해정사(032)519-5552
교리강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생법회 일 오전11시
청년회법회 격주 일 오후2시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해인사원당암 (0599)32-7308
용맹정진법회 첫째, 셋째 토 오후5시
아미타불천일기도 매일 새벽3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성보전시관 건립 적극추진

정부 지원약속 … 사찰 문화재지키기 '초비상'

송광사 영정13점 도난 … 국외반출막기 총력

송광사 16국사 영정 도난사건을 계기로 사찰문화재 보존에 비상이 걸렸다. 조계종은 각 말사에 분산 방치돼 도난 위험이 큰 지정문화재를 비롯 사찰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본사별 성보전시관 건립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주돈식 문화체육부 장관도 지난 2일 "전국 사찰들이 할 보유 문화재를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권유하고 사찰이 문화재 보호책임을 맡을 경우 자금과 기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또 "문화재가 전국 사찰에 산재해 보호관리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본사에 모아 효율적으로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지난 8일 긴급 교구본사 사회국장 회의를 소집, 성보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과 성보전시관 건립을 위한 추진 여부및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통도사 사회국장 스님의 전언에 의하면 종정 월하스님도 송광사 영정 도난사건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하며 "각 말사의 지정문화재를 비롯 주요 성보문화재를 본사로 취합, 본사에서 관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교구 산하 사찰을 대상으로 성보실태를 조사, 성보 등록대장을 만들 것 △본사별 상설 성보도난신고센터 운영 △송광사 성보 되찾기에 종도 모두 총력을 기울일 것 등 3개항을 결의했다.

한편 조계종은 「송광사 성보도난대책위원회(위원장 시현)」를 구성, 정부 차원의 '문화재사법 전담반' 설치를 촉구하고 지난 2일자로 문화체육부·법무부·내무부 장관 경찰청장 검찰총장 전남경찰청장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조계종은 성보의 국외반출 우려가 있는 공항 항만 해양 취약 지구의 검문 검색 강화와 주한 외국인들에 의한 문화재 반출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성보도난신고센터(735-5864~5)를 상설운영하고 신고된 내용은 사안에 따라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송광사·경찰청이 각각 5백만원, 문화재 관리국도 2천만원의 포상금을 걸어놓고 있다.

지난달 27일 밤 도난당한 송광사 국사전(국보 56호)내 16국사 진영(보물 1043호)수사는 도난 12일째인 현재(2월 8일)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광범위한 경찰의 탐문수사에도 불구 빠른 시일내의 범인검거및 성보회수가 여의치 않아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외 반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조계종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보관리에 대한 인식을 각성시키고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해 앞으로 성보 훼손 및 도난등에 대해서는 종법에 의거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경숙 기자)



국사없는 국사전 지난달 27일 밤 성보종찰 송광사 국사전(국보 56호)에 모셔져 있던 16국사 진영중 13점이 도난당했다. 범인들은 국사전 뒷벽을 뚫고(흰 점선 표시) 들어와 영정을 훔쳐 달아났다.

종교상호 장기기증 합의

스님·재가불자등 생명공양 동참

생명공양실천본부(본부장 법장스님)는 생명나눔 현황의 국민적 확산도모를 위한 '생명나눔운동본부 불교·기독교·천주교 단체장 간담회'를 지난 8일 타워호텔에서 갖고 종교를 초월한 상호 장기기증과 교류, 장기기증운동의 범국민적 홍보와 정부지원문제를 함께 협조할 것에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공양실천본부장 법장스님을 비롯, 사랑의 장기기증 본부장 박진탁 목사, 한마음한몸 운동본부장 오태순신부 등이 참석했으며 장기기증운동의 유기적인 협조방안에 대해서는 다음날 다시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있어 장기기증운동의 대사회적 확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최근들어 생명공양실천본부에는 환경운동연합의 선세갑씨등 간사 17명이 장기기증을 신청했으며, 프로골퍼 최숙씨와 아버지 최장성, 언니 최희옥등 가족이 함께 장기기증을 약속하기도 하는 등 생명공양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불자가족, 부부, 학인스님등 각 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창립된 생명공양실천본부에는 95년 2월1일까지 단순장기기증자 8백62명과 헌혈자 1천25명등 총 1천8백여명에 이르는 많은 불자들이 생명공양운동에 동참해왔으며 서울대 의과대학에 2명의 안구와 시신 3구를 기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北에 '쌀 보내기운동' 전개

불교등 6대종교 공동모금등 합의

북한에 양곡 30만톤 보내기 운동에 불교계가 동참한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6대 종교 모임인 한국종교평화회의(KCRP)는 지난 7일 신라호텔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배분문제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북한에 양곡보내기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불교계에서 시현스님(조계종 문화사회부장)이 대표로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6대 종교가 공동 모금 주체가 되고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며 국제선명회가 참구여합을 한다 △북한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양곡을 오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나 순수·비정치적 인도적 사업이므로 남북한 양측이 순수성을 긍정적으로 신뢰하고 협력해 주기 바란다 △사업은 한국정부와 상의해 추진한다 등 3대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이번모임에서 이번 운동으로 모금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남한의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도 나눠줄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문화재 관람료 전면자율화

행정쇄신委 예치금 의무비율 차등부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사찰문화재를 포함한 사유문화재 관람료를 자율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대통령에 건의함에 따라 사찰문화재 관람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쇄신위는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관리주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현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결정토록 되어 있는 관람료를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관련규칙 개정도 건의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일률 30%로 적용되던 예치금 의무비율을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조정했다. 또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전면폐지, 문화재관리자의 자율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지난달 25일 '국립공원 및 관람료 사찰 현안개선 실무위원회'를 열어 자율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관련사찰을 중심으로 마련키로 했다.

목어

졸업 시즌이다. 교계의 각급 불교교양대학은 1천6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중에서 5백50여명이 포교사증을 받는다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았으면 사람들을 위해 설해 주어야 한다"〈제법집요경〉

경전 곳곳에서 전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듯 포교는 불자의 당연한 의무다. 때문에 불자의 도리를 알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졌다는 원력 보살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새 포교사들이 과연 대중앞에 자신있게 설 수 있을만큼 수련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경전은 포교의 기본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

"제가 가르침의 본의를 알고 있어야 남을 가르치기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려면 먼저 자를 가르쳐야 한다"

또 이런 구절도 있다.

"가르침을 펴면서 듣는 자를 위해 대비(大悲)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악마의 소행이다"

전국 50여 불교교양대학이 자체기준으로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은 일학이 지적돼온 문제점이다. 그런데도 교계는 속수무책이었다. 개혁바람이 불면서 최근 조계종은 장예 포교사 20만명 확보계획을 세우고 포교사 자격고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포교사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다면 각 종단 또는 종단협의회 차원의 단일창구에서 포교사 자격증이 여법하게 수여되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수립돼야 할 것이다.

포교사 자격증

"전통사찰,건축법 적용안된다"대법원 판결 15면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을 현대불교와 함께합시다

현대불교의 올곧은 신념 네 가지

현대불교는 혼탁하고 영악하기만한 세상에서 한 그릇의 시원한 생수가 되겠다는 신념하에 만들어집니다.

현대불교는 불교가 어렵고 시대에 뒤졌다는 평가를 단호히 거부하고 불교야말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가르침이라는 신념하에 만들어집니다.

현대불교는 모름지기 불교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연령·학력에 관계없이 바로 친숙해질 수 있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만들어집니다.

현대불교는 모름지기 불교야말로 인류가 당면한 세기적 과제의 해법이며 민족 통일을 여는 열쇠라는 신념하에 만들어집니다.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추구하는 현대불교와 함께 불자가 된 긍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행의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주인이 되십시오 (대표전화 : 737-8881)

■ **정기 구독 신청 방법**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우편신청의 경우 보내실 곳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판매부

■ **정기 구독료**
1개월 : 4,000원 6개월 : 22,000원
1년 : 40,000원 영 구 : 50만원(분할 납부 가능함)

■ **구독료 입금 방법**
지로 은행지로창구에 가셔서 지로번호 **3054464**로 내시면 됩니다.
온라인 입금 : 예금주 현대불교

온라인계좌번호 (국민은행)
245-25-0001-461 (주) 현대불교신문사

<지로용지를 발송합니다>
95년 1월 말 현재 현대불교신문을 받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지로용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희망하시는 기간에 해당하는 구독료를 은행창구를 통해 납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 설

성보보존, 정부·종단 공동책임

전통문화를 갖지 못한 민족은 미개 민족으로 멸시 받는다. 민족의 긍지는 전통문화의 뿌리가 얼마만큼 튼튼하고, 그 문화를 얼마나 화려하게 전승 발전시키고 있는 가에 달려 있다.

세계에는 수 많은 민족이 있고 그들은 각기 특징이 있는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정신이며 민족의 생명이다. 그 문화를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생명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다.

갖가지 많은 문화재 중에서도 성보문화재는 더욱 더 중요하다. 정신의 뿌리요 생명의 의지처이기 때문이다.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성보문화재가 또 도난을 당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어떻게 민족의 문화재며 만인의 의지처인 성보문화재를 훔쳐간단 말인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문화재의 도난이나 도굴이 심심찮게 자행되고 있지만, 그때마다 관리책임마저도 확실히 지는 사람이 없다. 민족문화의 관리 책임자인 정부는 무얼하고 있으며, 자기 신앙의 재산인 성보문화재를 도둑맞고도 속수무책인 종단과 사찰관리자들은 허수아비인가. 조상의 문화재를 훔쳐 팔아 먹으려는 국민은 과연 문화의식이 있는 후손인가. 차제에 다같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먼저 정부의 관계부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도 중요하지만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에 더 힘써야 한다. 전통문화재는 한번 없어지면 다시는 복구가 어렵다. 개인의 종교가 다르다 해서 민족 조상의 문화재를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된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생활이 풍요롭다 하더라도 전통문화를 보존 유지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정서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국가의 위상이 정립되지 못할 것이다. 차제에 대학에 전통문화재학과라도 만들어 성스러운 민족문화를 보존·전승토록 하고, 문화재 보호에 특별한 조치를 하여 귀중한 민족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다음에 성보문화재의 직접 소유권자인 사찰과 종단에서는 도난에 대한 통탄만 하고 멍하니 있지 말고, 관리책임과 성보문화재의 가치인식에 대한 종책과 의식부족을 절실히 느끼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계속 반복되는 성보문화재의 도난과 화재는 분명 어디엔가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 전 종도와 종단이 우리 것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철저하다면, 종도자체의 교육은 물론이요, 정부와 국민에 대한 협조와 의식전환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리고 오천년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으로서 개인의 신앙이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우리민족은 같은 뿌리의 한 민족임을 유념해야 한다. 세계문화계에 우리의 전통문화재가 각광을 받고 있음은 우리 민족의 문화가 우수하다는 증거이다. 각종 교육계와 언론에서도 민족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교육과 계몽이 앞서야 한국문화가 세계화되고, 세계화된 한국인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열린마당 성보도난

문화재사범 전담반 구성 시급



시현스님

선사들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성보문화재가 절도범들에게 도난당하는 사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종단과 송광사에 있음을 통감한다. 이번 도난사건에 대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종단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더이상 성보가 도난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다.

정부의 문화재 관련기관 또한 '문화재 사범 전담반'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는 행정기관에게는 이례적으로 사법적 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나 예산과 인력의 미비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중앙차원의 문화재 사범 전담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로인해 문화재 도난사건 발생시 현지 관할 경찰서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의 결여, 정보의 부족, 공조수사체계의 허점 등으로 사건 해결의 적시성을 놓치고 있다. 만약 정부가 문화재관리를 사찰에 위임할 뜻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단도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점차박물관을 건립해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장〉

유물전시관 건립등 지원할터



김진무 국장

문화재는 역사적 학문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국민 모두의 재산으로, 6천6백43건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30.6%에 이르는 2천39건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도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불교문화재는 문화유산이라는 성격과 함께 신앙·예배의 대상이므로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도 없고, 일일이 간섭할 수도 없다.

따라서 소유주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체 문화재 가운데 70%가 개인소장품이며, 이들 문화재는 각종 사설박물관 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문화재는 전국의 사찰에 산재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수행하는 스님들이 문화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교활동등에 지장이 없는 한 불교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물전시관 건립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건립할 때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 바 있으며, 직지사 송광사 부석사 유물전시관 건립 및 확장공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물전시관 건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공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에 위탁 보관토록 권장하고, 문화재 보관시설에는 CCTV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도난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문화재 관리국〉

전문위원 확보 관리체계 구축



장충식 교수

승보사찰 송광사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국사전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은 불교계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충격이 더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종단이 실효성 있는 성보문화재 관리책을 세워야 한다.

종단이 관리의 불사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불교문화재 전문위원의 활용이다. 새롭게 출범한 종단은 하루빨리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성보관리의 전문화를 꾀해야 한다.

또 본사별로 박물관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전문요원을 배치, 관리, 연구, 보존을 맡겨야 할 것이다. 이를위한 성보문화재 전문연구원의 양성기관도 설치해야 하고 정부와 종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성보문화재의 관리는 승속을 뛰어넘는 국민모두의 몫이라는 인식전환도 필수조건이다.

〈동국대 고미술학과〉

현대만평

박구원



구멍난 보안

시 론

자연재해가 주는 교훈

좀 믿기지 않는 얘기이지만 점성가들이 보는 올해년의 운세는 그리 순탄치가 않다. 그들은 올해가 주로 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대격변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점쳤다. 이탈리아의 대홍수, 미국의 지진, 각종 유명인들의 스캔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이변이다.

일찍이 환경보호주의자들이 그렇듯 우려했던 기기묘묘한 재난들이 예측을 불허하며 세계 곳곳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새해가 바뀌기 무섭게 일본에선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몇배 더한 지진이 일어나 한 도시를 잿더미화 시켰고, 이에 대한 세계의 근심스런 눈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럽에서는 대홍수가 일어나 네덜란드의 경우 나라 전체가 바다로 변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러한 재난은 유럽은 물론 북미 남미까지 퍼져 한겨울에 눈아닌 물난리를 겪게 하고 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경우엔 영호남 지방이 홍수 대신 몇달째 가뭄이 들어 대지가 마르고 댐이 말라 식수까지 위협을 받는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다. 그야말로 지구촌 곳곳마다 발생하는 이 거대한 재난에 아무리 첨단을 달리는 선진국일지라도 속수무책이다.



윤광봉
〈대전대 교수〉

공교롭게도 이번 대재난을 겪은 나라들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모두 첨단을 달리는 선진국들이다. 이렇듯 선진을 내닫는 국가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이 자연의 이변. 이것은 분명 그동안 거만했던 우리 인간들의 오만을 심판하는 자연의 서곡에 불과하다. 그렇듯 환경보호자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작업은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우림의 황폐화를 비롯한 숱한 자연환경의 훼손.

겨울 같지 않은 겨울

실상 7년전만 해도 그 징조는 이미 나타났었다. 당시 중국의 홍수와 한발의 교차, 브라질과 방글라데시의 대홍수, 그외 화산 쯔발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이미 거론된 지구의 온난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알고보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덫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수없이 뿜어대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층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 지구를 덮고 있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에서 뿜어대는 가스가 이 지구를 어떻게 오염시키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거리를 뿜내며 활주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그러다보니 하늘은 늘 뿌옇고 지구는 점점 더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겨울이 와도 겨울같지 않고 여름이 와도 여름같지가 않다. 그 거대한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그 물이 이 지구를 덮기 시작한다.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자연의 변화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지 모른다. 이제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연 뿐이다. 자연만이 인위적인 것을 넘어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은 일찍이 우리를 향해 설파한 노자의 말이다.

환경파괴 서로 경계

자연은 다름아닌 도(道)의 존재양식이다. 그래서 노자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그러나 돌아가야 할 그 자연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를 삼키고야 말겠다는 분노의 여신으로 변하고 있다. 그야말로 원래 있던 그대로 잘 보호하고 있었으면 됐을 것을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알량한 지혜로 만물의 영장임을 과시하면서 자연을 희롱했던 것이다. 그러나 거대한 자연이 성이 날 수밖에 없다.

만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따라서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없다. 법구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허공도 아니고 바닷속도 아니며, 더구나 산속의 바위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 땅 위에서는 죽음을 받지 않고는 어딜가도 벗어날 곳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결코 그 재난에 굴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보았다. 고베 시민들의 침착함과 네덜란드 인들의 방비책이 그것이다. 이들은 옛부터 늘상 자연의 위협을 받으며 그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를 익힌 예증들이다.

·일본의 경우, 항시 따르는 바람과 비 그리고 지진의 피해로 인한 하늘에 대한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어느곳 보다도 많은 신을 믿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신을 믿지 않고는 그 거대한 자연의 횡포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 앞에 그들은 늘 엄숙하고 경건했다. 이것은 자연이 갖다준 나름대로의 지혜가 되었다. 그래서 웬만한 재난에도 결코 그들은 놀라거나 굴하지 않는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끊임없이 바닷물이 넘칠 것을 예견하며 자연의 위협에 대비해 오다 보니 그들은 어느새 방비에 익숙해진 것이다.

이로 볼 때 역시 자연에 대해선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하고 그들을 두려워 할 줄 알며 경건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또한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깨닫은 진리였다. 천지 대자연은 원래가 무자비한 존재이다. 거기에는 정도 증오도 없다. 물론 인간적인 감정도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더 겸허해야 한다. 아무리 하늘 악마, 신같은 무서운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탐욕과 사악한 마음을 극복하여 도를 얻는 사람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이다.

지구가 당장 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을 새삼 되새기며 우리 모두 좀더 겸허하자. 그리하여 환경파괴에 대해 서로 경계하며 죽어가는 지구를 살려야 한다.

현대불교를 법공양합시다 구독신청 737-8881

祝 3월 1일, 불교텔리비전개국

"불교영상 21세기, 우리가 이끌어가겠습니다"

문의전화 3270-3471~4



불교영상에도 이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불교를 알고 영상을 아는 사람들,
바로 불교TV 영상사업부 사람들입니다.
불교영상의 모든 것, 저희들과 의논해 주십시오.





■프로모션사업을 도와드립니다.
- 교계 문화·예술관련 이벤트 행사 기획
- 불교텔리비전 방송프로그램 연계사업 추진





■프로그램을 제작해 드립니다.
- 사찰·포교당 홍보 VIDEO 제작
- 교계 기념일 법요식·법회등 기록영상 제작
- 교계 기업 광고·홍보영화 제작
- 교양 다큐멘터리 제작
- 교계 뉴스제작 (불교텔리비전 방송용/교계 홍보용)
- 각종 기획 영상물 제작·공급

btn 불교TV 32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 : 3270-3300 팩스 : 3270-3498

사진제공·대중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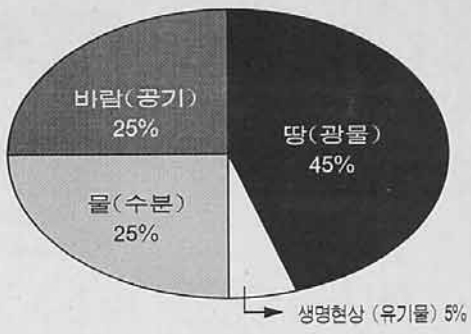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④

땅

1g 흙에도 7~8억 생명이 집짓고 살아

물·불·바람 등과 상호작용…인체도 같아



◇건강한 토양의 구성비

땅은 지대(地大)라고 하는데 큰 대(大)자는 마하부따라고 하는 빠알리어를 번역한 것이다. 마하부따는 위대한 존재라는 뜻이다. 땅은 참으로 땅이라고만 할 수 없는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이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생태구조를 갖고 있는 위대한 존재이다.

이 산과 저 산 사이에 이집과 저집이 있고 그 공간에는 계곡이 있고 들판에는 여기저기에 낮은 웅덩이가 있고, 들이 흐르고, 강, 호수가 있고 구름이 떠다니고, 따스한 햇빛이 비추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뛰어 놀듯이, 한줌의 흙속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다. 한 줌의 흙속에는 아주 작은 직경 0.002mm크기의 찰흙과 흙알들이 뭉치고 흩어져 들판을 형성하고, 직경 0.02mm~0.2mm 사이의 모래들은 찰흙과 뭉쳐 구릉을 만들고, 직경0.2mm~2.0mm의 굵은 모래들은 찰흙과 뭉쳐 바위와 산을 이루고 있다. 그들 사이로 햇빛에서 온 온기가 전달되고 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고, 구름이 떠다니고, 시냇물이 흐르고, 호수가 형성되어 수많은 생명이 집을 짓고 산다. 이러한 표토의 건강한 흙 1그램속에는 엄청난 밀림의 수많은 나무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균사류 즉 곰팡이들인데 이 균사류의 크기의 총연장이 3~4억 미터나 된다고 하니, 1그램의 흙속에도 열대의 원시림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수많은 식물로 존재하는 셈이다.

또한 그러한 마른흙 1그램의 생태환경속에는 무려 7~8억마리의 세균들이 집을 짓고 산다. 상상해 보라. 과히 1그램의 흙덩이는 살아있는 지구를 방불케 한다. 지구가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한줌의 밭의 흙은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땅의 생태적 구성비율은 사막이나 해저, 논이냐 밭이냐에 따라 조건적으로 변화하지만 그러한 모든 생태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지구상의 어디에서든지 상호작용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땅의 이러한 토양학적 생태환경은 우리의 신체구조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우리의 몸의 장기도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의 생물화학적 작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부처님은 중부아함경 상적유대경(象跡喩大經)에서 외부적인 이러한 자연의 땅에 대해서 내부적인 신체의 땅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분명히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순환적 생태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이 땅의 세계인가? 내부의 땅의 세계와 외부의 땅의 세계가 있다.

벗이여, 무엇이 내부의 땅의 세계인가? 내부적인 것으로 개체적인 것이며, 거치른 것이며, 견고한 것이며, 취착된 것으로, 예를 들어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늑막, 비장, 폐, 창자, 장간막, 위장, 똥 및 기타의 다른 내부적인 것으로 개체적인 것이며, 거치른 것이며, 견고한 것이며, 취착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벗어여 내부적인 땅의 세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내부적인 땅의 세계인 것과 외부적인 땅의 세계인 것을 땅의 세계라고 한다"

'95 신행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금주의 주제

신도회 가입

소속감갖고 폭넓은 신행활동

궂은일 · 기쁜일 · 수행도 "도반과 함께"

공무원인 강정원씨(24)는 불교 종립학교인 ㅁ고등학교를 다닌 탓에, 자신을 불교신도라고는 느끼지만 절에 가는 것은 1년에 한번인 부처님 오신 날, 어머니 따라 절에 가 등을 달면서 언젠가는 절에 정기적으로 나가리라 다짐하지만 언제나 할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

인천에 사는 안영희 보살(50)은 며칠전 시어니상을 당하고 슬프기에 앞서 갑작스런 상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자신과 시어머니가 같이 다니고 있는 ㅇ사 신도회에서 3일 낮 밤을 물심으로 도와주어 무사히 큰일을 치를 수 있었다.

ㅂ사 거사림에 등록하고 매주 금요일에 하는 교리공부에 동참하고 있는 이찬교 거사(55)는 최근 금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 정기법회에도 나오게 됐다. 일주일에 1번 절에 나오는 것이 힘든것 같고 틈을 내기 어려울 것 같은 두달전 생각이 이제는 아득하다. 강사스님의 쉬운 해설에 불교공부가 솔솔 재미있지만 절에 나오다 보니 절이 마치 고향처럼 포근하고 스님들과 토론도 하고 상담도 한다.

방배동에 사는 김영숙보살(43)은 최근 방배동에 있는 ㄱ사를 재적사찰로 정하고 아예 신도회까지 가입했다. 신도회 정기법회때 자신을 환영하며 뜨겁게 박수쳐 주던 신도들의 환한 웃음이 아직도 새롭다. 김보살은 이른바 철새신도. 그동안 한 사찰을 정해 다니기 보다 기도 영험이 있다는 사찰을 순례하듯 돌았다. 전국적으로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

ㄱ사 신도회에 가입까지 하게된 이유는 방배동 아파트로 이사오면서 같은 동에 살게된 친구 때문이다. 친구의 권유로 ㄱ사에 가본 김보살은 모든 절운영과 관리가 신도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친구말을 듣고보니 한달에 한번 신도회 임원회의를 열어 사찰 행사 전반을 논의하고 3개월에 한번씩 자체감사도 한다는 것. 주지스님도 필요한 돈은 허가를 얻어야 하며 영수증까지 첨부해야 한다는 말에 짬진 사찰 운영을 느낄 수 있었다.

김보살은 주지스님이 "잘 오셨습니다. 이 절의 주인은 바로 신도분들이십니다. 손님처럼 생각지 말고 주인의식으로 절을 마치 내집처럼 여겨주십시오"라는 말을 기억하며 오래 방랑하다 한곳에 정착한 신도로서 최선을 다한 것을 다짐해 본다.

깨달음의 사회화 성금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스님	6십만원
▲도선사	1천1백4십만2천원
▲봉은사	8백5십1만6천2백원
▲금산사	7백2십9만4천350원
▲임영숙외 1인	2만원
▲수국사	6십3만원
▲청계사	5백만원
▲강서 약사사	1백3십2만8천원
▲봉선사	2백1십5만6천원
▲익명	5백만원

〈2월 2일~8일〉

* 성금모금계좌번호
농협 053-01-22778(불교중앙교원)
국민은행 023-01-0533-563(불교중앙교원)

신행수첩

부처님의 땅 제주순례 불교시민상담실

국제관광지 제주는 불교성지이기도 하다. 부처님 제자 발타라존자가 진신사리를 한라산 영실에 모신것이 2천5백년전. 일반적으로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것이 1천6백년전 고구려 소수림왕 때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보다 1천년이나 앞선다. 제주가 부처님땅임을 증명하는 것은 더 있다. 탐라, 아라, 사라등의 지명이 범어라는 것은 언어학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서귀포, 법환리, 절골등 한라산 어디에나 불교용어가 지명으로 남아 있다. 더구나 인구 50만명에 사찰만 3백50여개가 있으니 어찌 제주가 부처님 땅이 아니겠는가.

한국불교시민상담실이 관광지로만 알려진 제주가 왜 불교성지인지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지역 사찰과 불교유적지를 참배하기로 한것이다. 이번 순례에는 고려말 불교혁신을 꾀하다 순국한 보우대사 순교성지 고관사를 비롯 법화사지, 약천사, 보덕사등을 참배한다. 또한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 자리한 해수관음상을 찾아 각자의 발원을 세울 예정이다. (02) 722-0108

참회의 삶에 자비손길

청송·대구 재소자 위문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는 재소자들은 추운 겨울을 맞아 더욱 외로움을 느낀다. 따뜻한 자비의 손길이 기다려 지는 것이다.

경전독송연구와 자비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대구 법화경교단(법주 광덕)은 오는 22일 27일 각각 청송감호소와 대구 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위문법회는 재소자들의 마음공부를 위한 불서를 비롯 위문품을 전달하고 광덕스님이 법문을 설한다.

부처님법을 찾는 재소자들에게 한권의 불서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될 위문법회는 추운겨울을 녹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

(053)952-8711

스님·신도함께 등산

26일 법왕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함께 산행을 겸한 야외법회를 떠난다.

법왕사(주지 실상)는 26일 스님들과 거사림회, 청년회, 중·고등학생회, 어린이회가 함께 하는 동계 산행 야외법회를 갖는다.

김천 직지사 참배 및 황악산 정상 산행으로 짜여진 일정은 불제자들에게 신심으로 추위를 이기며 즐거운 마음으로 명산의 정상에 올라, 대자연과 하나되는 법열을 맛보게 할 것이다.

신라 눌지왕 2년(418) 아도화상에 의해 개창된 직지사(聞旨寺)의 절 이름은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선종의 가르침에서 유래됐다는 설화를 간직하고 있다.

야외법회에 동참할 불자들은 자유로운 복장에 도시락을 지참하고 아침 7시 30분까지 법왕사에 모여야 한다.

(053)766-3747

가족찬불가 솜씨자랑

대구시 신도회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그 마음이 미묘한 향이로다."

불자들의 입에서 흥얼거리는 생활경구들.

현대에는 유치원 아이에서 팔순노인에 이르기까지 현철의 '봉선화 연정'을 노래하고, 노사연의 '만남'을 부른다.

쉽게는 손가락 장단에 맞춰 삼귀의를 부르고, 보현행원을 노래할 수 있는 찬불가 또한 불법의 인연을 이어가는 불자들에게는 경전보다, 염불보다 친근하게 다가온다.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광역시 신도회에서는 이처럼 대중불교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찬불가 향연의 장인 '제2회 가족 찬불가경연대회'를 마련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수학할 기회를 주선한다.

경연대회는 1차 예선을 4월 22일 대구 보현사에서 거쳐 5월 1일 고려예식장에서 2차 본선 경연으로 펼쳐진다.

우리 모두 입속에서 흥얼거리던 찬불가를 뽑내보자.

(053)425-4097



◇대구법왕사는 26일 스님들과 일반신도 및 어린이 불자들이 함께하는 동계산행법회를 직지사 황악산서 갖는다.〈사진은 직지사 대웅전과 삼층석탑〉

폐품모아 환경보호 실천합시다

24일부터 본동사회복지관 재활용교환센터 운영

무심코 버리는 수많은 종이들을 모아 만든 재활용 휴지, 넘쳐버리는 폐유를 모아 만든 재활용 비누를 사용하는 불자들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환경은 봄날의 미소처럼 활짝 피어날 것이다.

서울 동작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선례)에서는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지역주민과 불자들에게 환경보존의 큰 의미를 깨우쳐 주기위한 '재활용 교환센터'를 오는 24일 실시하게 된다.

환경보존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실시되는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의 재활용교환센터는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우유팩, 신문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는 지역주민들과 재활용비누, 휴지를 함께 교환하면서 작지만 큰 환경보호의 힘을 엮어나갈 계획이다.

(02)817-8052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생활속의 불교 16

"왜 사느냐고 물었더니…"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왜 사느냐 묻거든 웃지요"
인생을 꿈 같다고 읊은 이가 있다. 물거품 같다, 뜬구름 같다고도 한다. 금강경에선 몽환포영(夢幻泡影), 꿈·환상·물거품·그림자라고 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꿈자리에서조차 잊지 못해 하는 명예·권력·부란 무엇인가. 그 모든 게 다 몽환포영이란 말인가.

이 즐거운 세상,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부·권력·명예를 쟁취하고, 나 보란듯이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시적인 향락이나 평안을 얻을 수는 있어도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 왜냐? 이 몸은 조만간 스러져 갈 것이고 갈 때는 이 몸뚱이 끌고 갈 수도 없고 동전 한 푼 들고 갈 수도 없고, 명예를, 권력을 껴안고 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평생을 기울여 그렇게 집착하며 구하던 것들도 생을 마감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그러니 되돌아 보는 순간 모든게 꿈·환상·물거품·그림자가 아니겠는가.

사람은 꿈이 꿈인줄 모르기에 꿈 속에서 혹은 기뻐하고 혹은 괴로워한다. 그러다가 깨어나보니 쓉쓸하다.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쾌락의 꿈, 고통의 꿈에서 깨어나 크게 한 번 껄껄 웃고 명철한 눈으로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왜 사느냐는 물음에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인생 최대의 숙제이다.

불법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밝혀주고 길을 가르쳐 준다. 내가 누구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를 가르쳐준다. 그 가르침에는 사람의 환희가 있다.

불법의 ·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베파베리아
(VAPOUR BARRIER:알미늄 보온방습 단열재)

자체개발에 성공!

삼민산업(주)은 그 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온 고품질 베파베리아의 자체개발에 성공, 의장등록,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으며 국내 유리면 생산업체 납품과 국외수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삼민산업(주)이 개발한 베파베리아는

가. 경이적인 단열 보온효과가 있습니다.
나. 방습·방수 효과가 우수합니다.
다. 실내외 온도를 차단하므로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 냉동용 베파베리아 · 건축용 베파베리아 · 축사용 베파베리아
· 난연용 베파베리아 · 방수용 포장재 · 레저용 MAT

SAMMIN 삼민산업주식회사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4 나-109호
· 전화 : 0345-498-5533
· 팩스 : 0345-498-8998

교차로

중앙승가학원 이사장에



송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9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법회에서 학교법인 중앙승가학원 제3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주한 인도 대사 접견



서경보스님(일붕선교종정)은 3일 법왕청 대법당에서 신임 샤 상크 주한 인도 대사의 부임 축하법회를 갖고 인도 부다가야에 건립하는 한국사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 지진피해 복구 성금



전운덕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은 지난날 27일 일본 천태종 총본산 히에이산 엔랴쿠지에 우편으로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지진피해 복구성금 1천만원을 한국일보에 기탁했다.

미얀마와 문화 교류



김대호스님(대한법화종 총무원장)은 오는 16일 금호동 팔봉사에서 미얀마대사(우 폰 민트)와 오찬을 함께하고 양국간의 상호우의와 문화적 교류를 다진다.

청평사 주지 취임



청화스님(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은 지난 달 23일 조계종 제3교구 말사 춘천 청평사 주지로 취임했다.

안양교도소 위문



현성스님(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은 지난 달 31일 설날을 맞아 안양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떡국 공양하고 선망 부모 합동제사를 지냈다.

'우리는 선우' 법회서 강연



도법스님(선우도량 대표선우)은 지난 4일 '우리는 선우' 법회에서 '나는 내삶의 주인공인가'란 주제의 강연을 했다.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불자들의 모든 삶은 깨달음으로 회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베지진 동포돕기 자선전



심중스님(한일불교복지협회장·자비사 주지)은 일본 고베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교민돕기 자선전람회 개최를 위해 지난 4일 출국했다.

원각사 법당 개원



청청스님(원각사 주지)은 탑골공원 원각사지 10층석탑의 복원운동의 실질적인 전개를 위해 원각사법당겸 원각사 복원추진위 본부를 열었다. 16일 오후 2시에 문을 여는 원각사 법당의 위치는 탑골공원 뒷편 중앙빌딩 6층. (02)765-1379

밀양 사원연 회장 취임

신허스님(표충사 주지)은 지난달 21일 밀양실내체육관에서 밀양불교사원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스님은 이날 연합회가 마련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1백만원을 시에 기탁하고 소년소녀가장 34가구와 자립원에 성금을 전달했다.

백제미술 주제 강연



서돈각이사장(대한불교진흥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불교방송 공개홀에서 「무녕왕릉 출토품을 중심으로한 백제미술」이란 주제로 제47회 다보문화강좌를 열었다.

불교도움기구 후원의 밤



김재일(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회장은 22일 오후 6시 서울 중구청 구민회관에서 불교도움기구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김병조, 김홍국, 장미화씨 등 불자연예인들이 대거출연하는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르완다 난민돕기위한 저금통 '자비의 종' 제작비로 사용된다. (02)722-0108

대원불교대 졸업식 거행

허성구학장(대원불교대학)은 11일 오후 2시 제27기 통신 및 출강 졸업식을 거행했다.



제4대 천리안 동호회장
박성진 씨

"컴퓨터는 더이상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컴퓨터

'대중화 원년' 선포…설법방등 신설

불교동호회는 젊은이 이외의 불자 참여폭을 확대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여일간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제4대 천리안불교동호회장으로 선출된 박성진(44, 법명 자광)씨는 금년을 '컴퓨터동호회 대중화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임기 1년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박 회장은 우선적으로 1천5백여명의 회원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운영위원 6명을 위촉, 각 화일방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설법방'을 신설해 스님들의 참여폭을 확대시키며 상담실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불교가 딱딱하고 고리타분하다는 관념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박회장은 "컴퓨터에서 느낄 수 없는 불교적 정서는 정기법회와 사찰순례를 통해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3년전, 늦은 나이에 컴퓨터통신과 인연을 맺은 박 회장은 매일 2시간이상을 동호회에서 활동, 회원들로부터 '사회적연륜과 경험, 불교원력' 등 3박자를 고루갖춘 회장으로 추대된것.

중·고등학생때부터 불교학생회 회원으로 활동해온 박 회장은 선물용 장식품회사인 거림아트를 운영하고 있다.



허학장은 이날 71명의 졸업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외부인사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공군 군종감 취임



백영식법사는 오는 20일 대전 계룡대 호국사에서 취임법회를 갖고 제17대 공군 군종감에 취임한다.

자료 수집위해 네팔방문

이근후교수(이대부속병원 신경정신과)는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보름간의 일정으로 네팔을 방문.



인도 스케치 여행 출국



하수경교수(전 주대미술학과)가 지난 12일 인도로 스케치 여행을 떠났다. 하교수는 "인도 여행은 작품활동에 신비한 힘을 준다"며 이번 여행에서 인도인의 생활상을 객창감없이 실상그대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

'95 불교계 샛별 ★

불교방송 제작부차장
김정학 PD



방송포교 영역넓히는 '행동파'

'세계불교문화전' '섬불교…' 등 대작추진

신년벽두부터 종횡무진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구수한 경상도 말씨의 김정학씨(불교방송 제작부 차장).

그는 이미 「세계불교문화전」「섬불교 포교방송」「개화승 이동인과 나라세우기」등 올해의 10대 기획안을 완성해 놓고 95년 한국불교의 등대역할을 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간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올해의 사업을 차근차근 성실히 성취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자들의 가슴에 깨침의 등불을 켜주고 싶은 바램입니다"라며 불교의 저변화와 열린세상을 위한 노력에 굳은 의지와 포부를 밝혔다.

불교방송의 개국멤버이기도 한 그는 93년, 역사다큐멘터리 '일연스님과 대장경의 비밀'로 제20회 한국방송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해 이미 PD로서 제작능력과 기획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구도의 길' 등 영상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 차세대 불교문화를 위한 산파역으로도 한몫을 톡톡히 해 왔다.

김정학PD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새로운 영역과 소외된 부문에 대한 교량역할, 등불역할을 자처하고 계속해 나갈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의 10대 기획안 중 방송포교의 획기적인 면모로 부각될 〈섬불교 포교방송〉은 불교부산·광주방송 개국으로 말미암은 전국방송원년에 그동안 외면당한 섬지역 불교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조선시대 초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불교가 탄압되고, 승려가 천시되던 때에 개화파 양반귀족의 정신적사표로서, 개화 선두주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개화승 이동인의 업적을 기리는 〈개화승 이동인과 나라세우기〉도 광복50년 특집으로 기획하고 있다.

김PD는 "우리는 한국불교사에서 많은 것을 새로이 인식하고,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불자 스스로가 차세대의 주인으로 한발 먼저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라며 개척자적인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또, 일연스님과 남해분사도감 그리고 팔만대장경에 싸인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있는 그는 역사적 사실들을 올해엔 투명하게 하나하나 짚어갈 계획으로 다양한 아이템의 구상과 실무의 진행으로 24시간을 분주하게 뛰고 있다.

"그동안의 작업이 주위의 도움과 격려로 가능했듯이 올해도 방송국 선후배 그리고 교계 여러분과 힘을 합쳐 불교의 내일을 여는데 전력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추진중인 일들을 드러내기 쑥스러워 하는 김PD는 불교방송 개국5주년 기념으로 3월에 선보일, 또 하나의 대작불사 '세계불교문화전'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도필선 기자〉

탐방 봉선사 불경서당



◇ 불경서당 강의 장면. 월운스님을 중심으로 20여명의 학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있다.

스님·대학원생·직장인등 함께 경전 공부
10년간 동문50명배출…월운스님이 지도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광릉내에 있는 봉선사 동별당 앞에 서면, 댓돌 위에 가지런히 놓인 여러 켤레의 신들이 눈길을 끌고 은은한 독경소리가 귀를 유혹한다.

해인스님을 비롯한 스님 4명과 대학원생·직장인 등 모두 20여명의 남녀 학인들이 강백(講伯)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앉아 「청량 화엄경소」를 공부하는 정경은 마치 옛날 한 서당의 풍취를 느끼게끔 한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반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이 모임은 불교학·사학·국문학·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강사, 직장인, 학인스님 등 20여명 안팎의 연구생들이 월운스님을 모시고 서당식으로 불전을 공부하는 불경서당(佛經書堂)이다.

지난 83년 초봄, 봉선사에 다니면서 월운스님의 독경과 강의를 귀동냥으로 듣던 연세대 신규탁교수(당시 대학원생)와 2~3명의 학생들이 여름이면 절 뒷방에 모여 그들끼리 공부하다가 스님께 모르는 부분을 물으며 시작된 불경서당 모임은 그간 「진계 능엄경찬주」「현수 대승기신론소」「원효 초발심자경문」「아미타경」「보조어록」「석가여래행적송」「원각경 규봉소」등 13여권의 불전을 강독해 왔다.

한문 불전은 특별한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해독할 수 없고, 더구나 재가의 몸으로 이런 공부 기회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깊이 있는 불교 이해를 위해서는 한문 불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란 사실은 모든 학인들이 느끼는 공통점이 아닐 수 없다.

"불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고인(古人)들이 써 놓은 책을 보니까, 그분들도 남이 한 얘기의 머리하고 꽁지만 떼어다가 몸뚱이 없는 돼지를 만들어 놓았더군. 새 방망이는 없고 묵은 방망이라. 원어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지…. 본질면에서 하는 얘기와 현상면에서 하는 얘기가 조화되지 않으면 수행이 되지 않아요."

자칫 경전공부를 소홀히 하기 쉬운 요즘 세태에 대한 월운스님의 채찍질이다.

경을 읽을 땐 장삼을 수하고 경을 향해 삼배를 할 정도로 엄격하지만, 막상 강의가 진행되면 다정다감한 할아버지 훈장님이 되는 스님은 불경서당 자체의 모임에 대해서는 욕심을 갖고 있지 않다. 오후 5시반부터 시작된 학인들끼리의 복습과 예습을 겸한 논강이 끝나면 정식 강의가 시작되는데, 강의는 언제나 스님의 제비뽑기로 시작된다. 번호가 당첨된 학인이 배울 부분을 먼저 읽고 해석하는 것이다. 중간중간에 막히면 스님은 우스개소리를 곁들이며 알기쉽게 설명한다. 중간중간 터져나오는 웃음은 배움을 즐기는 사제지간의 염화미소(拈花微笑)다.

지난 10여년간 50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불경서당은 4명의 대학교수를 배출하는 등 불교학의 간성을 배출하는 요람이 되고있다.

(0346) 68-1954
〈김재경 기자〉

게시판

▲가산학술상 공모=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가산학술상(전문연구위원) 공모와 함께 상임연구원을 모집한다. 가산학술상 공모는 불교학 박사과정수료이상 학력에 4월 15일까지, 상임연구원 모집은 불교학 박사과정 이상 학력에 2월 28일까지 원서마감.
(02)765-9602

▲전국지부 모집=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95년도 케이블텔레비전 원년을 맞아 방송호법과 시청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국지부를 모집한다. (02)712-5812~3

▲2월의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원장 서돈각)에서는 오는 22일(수)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동국대 역경원장인 월운스님을 초청하여 다보법회를 봉행한다.
(02)703-0108

공 고

불기 2539년도

본사주지·교계중진스님 연수회 개최

전종도의 원력과 신심으로 종단개혁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되고, 또 그 숭고한 호법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하여 교육원이 신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단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본사주지·교계중진스님 연수회를 개최하여 한국불교 현안문제와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 방법을 모색코자 다음과 같이 연수회를 개최하오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연수회 일정 : 불기 2539년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나. 연수회 장소 : 제 8교구 본사 직지사
다. 참 석 대 상 : ① 각 교구본사 전·현직 주지 스님
② 각 불교언론사 이사 스님
③ 각 종립학교 이사 스님
④ 종단 법인 단체 이사 스님

참조 : 2월 20일 오후 1시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9년 2월 6일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원장 원산

공 고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대의원 및 포교사·법사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다음

대의원총회
1. 일시 : 1995년 2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2. 장소 : 청량리 미주부페 장미실 (진주예식장 3층)
3. 안건 : 94년도 사업결산 및 95년도 사업계획 수립
기타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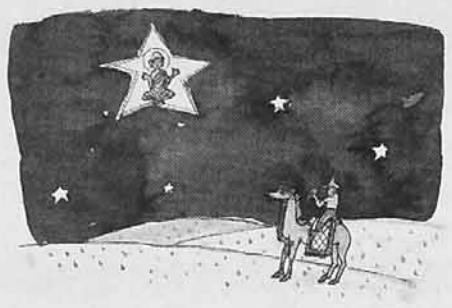
포교사·법사회 총회
1. 일시 : 1995년 2월 26일 (일요일) 오전 12시
2. 장소 : 청량리 미주부페 장미실 (진주예식장 3층)
3. 안건 : 94년도 사업결산 및 95년도 사업계획 수립
회칙개정
임원선출

※ 부득이 참석하지 못 하시는 대의원 및 포교사·법사회 회원께서는 필히 위임장에 기명 날인하여 1995년 2월 24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2월 7일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 한정섭
포교사·법사회 총회장 노정우

(130-01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1동 56-16 / 전화 (02)964-8044, 8085 / 팩스. 965-3143



삽화 · 이기선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⑭

보리행

'생명의 바람' 일게 하소서

악업수렁 허둥되는 사람 청정숨쉴때 삼독 물리쳐

정초 조용한 단칸 방에 혼자 있을때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염송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소인은 한가하면 잡념을 하게 된다지만, 잡사에 젖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염송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향내가 나게 하여야 한다.

샨티데바의 〈보리행경(菩提行經)〉은 참으로 좋은 책이다.

"모든 생명들이 지은 악업의 괴로움을 멈추게 하는 청정선을 나는 기뻐한다.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안락이 있으라. 나는 모든 생명들이 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구세자인 부처님의 자리를 기뻐한다. 모든 생명에게 안락을 주시옵고 모든 생명에게 착한 복을 주시는 교시자인 보살의 바다를 기뻐한다. 나는 합장하옵고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 간절히 바라옵나니 어리석은 까닭으로 괴로운 바다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앞에 법등불 밝히옵소서. 그리고 열반에 드시려는 부처님께 나는 합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옵나니 열반에 드시면 이 세계는 암흑세계가 될 것이니 미래 영원토록 이 세계에 머무르시어 밝은 빛을 주옵소서"

혼자있을땐 염송을

이 얼마나 찬탄과 예경이 스며진 노래인가. 우리는 지금 암흑의 어둠에서 욕망으로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앞의 찬송법문은 사람의 마음을 경건하게 한다. 부처님은 언제나 밝음이고 맑음이시다. 악업의 수렁에서 이리저리 허둥되는 사람을 청정한 빛으로 삼독을 해맑게 해 주신다. 스스로 지어 만든 괴로움이 천지사방 많이도 널려 있다하더라도 청정선(淸淨善)으로 때를 씻어 주신다. 악업이 쉴새없이 밀려온다 해도 청정은 자광처럼 온화한 손길이다. 구세자인 부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 윤회의 괴로움이 엉킨 그물망처럼 우리 앞을 막고 있어도 윤회의 갈래길을 하나 둘 풀어주시어 실타래에 새롭게 감기게 하는 한줄의 바른 실올되어 우리의 살길을 앞질러 일러 주신다. 이것이 부처님의 구원적, 구세적 자상한 어루만짐이 아니신가. 해저문 벌판 혼자 어둠을 응시하는 방황자에게 한 줄기 빛의 북극을 손짓하며 방향을 알려 주시는 구원의 빛 부처님. 그 큰 빛을 가슴으로 안아 보아야 한다.

실개천에서 고작 아가미 숨쉬는 잔솔보다 큰 바다에서 허파 가득히 숨쉬게 하는 보살바다는 어디 있는가. 자비가 바다이다. 생명은 마음껏 호흡하는 풍부한 산소를 함장하여야 한다. 부처바다 보살바다 그 넓은 태평양, 일체 생류 모두가 자재하게 호흡할 수 있는 바다숨 깊은 숨, 기쁜 바람 즐거운 바람, 마음놓고 호흡하는 무량대해 생명호흡이 이처럼 무진장 드리운 보살바다. 보살피는 청정호흡 이것을 기꺼히 향수하는 마음놓은 생명이 되어야 한다. 어디에 걸리면 지금 맺히면 안된다. 어디라도 자재, 언제라도 벗어버린 몸으로 저 바다 한 바다에 무애자재 헤엄치며 깊은 숨을 가슴에 채워가며 보살바다의 여의주가 되어야 한다.

「부처님 영원한 생명, 당신은 삼세가 다할때까지 시방계가, 허공계가 다할때까지 언제나 상주하시어야 한다. 부처님이 열반 드시면 사바에는 암흑이 오니 열반을 멀리하시면서 여기 지금 이 모든 중생과 함께 하시라」고 샨티데바는 노래하였다.

부처님께 드리는 찬탄은 단지 찬탄만이 아니다. 찬탄속에 스며있는 참뜻은 무엇인가. 지극하시고 거룩하신 부처님이 여기 지금 계셔야 함이 우리의 본분사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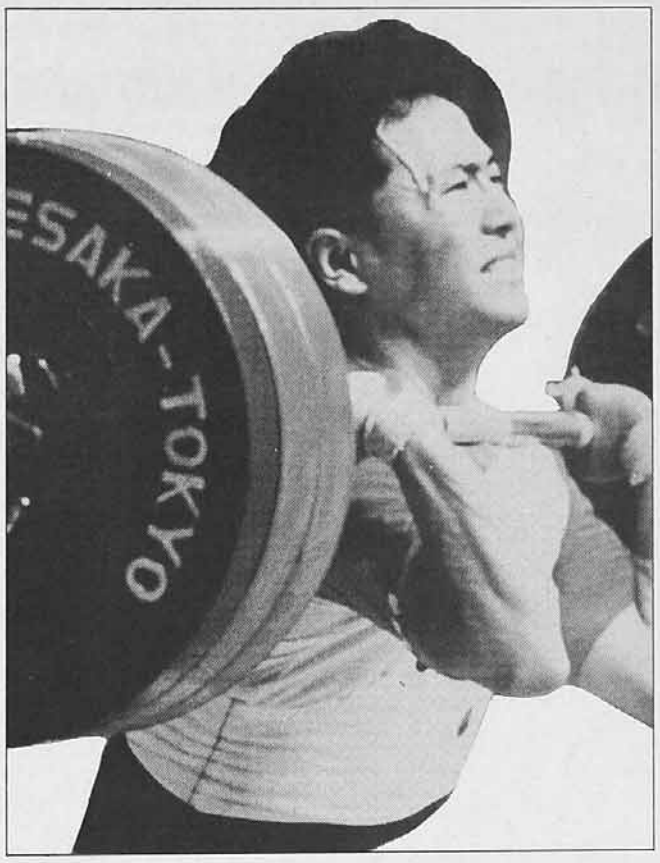
합장공경에 힘써야

사람은 숨을 쉬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숨바람을 본 사람이 있는가. 숨을 보지 못하면서도 지밀한 생명을 길러간다. 우주에 가득한 생명의 바람 우리는 겉으로 바람이라고 부르지만 오묘한 생명을 길러 주는 것은 숨어 있는 숨이다. 보이지 않는 숨이 숨은듯 감춰져 있지만 삶의 보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삶의 바람이다. 삶의 바람을 구하는 사람은 삶의 보람을 느낄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재롭게 가득하게 변만한 것이 부처님의 생명이다. 부처님과 우리가 함께 공존하려면 심심미묘하게 생명의 숨으로 숨겨져 바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은밀한 자재성에게 이 정성스런 마음을 합장공경 예경찬탄하면 보리행이 될 것이다. 보리행의 극치로 정성드림이 생명을 이어가는 삶이 되리라.

◆고칩니다:지난 2월1일자 15호 「생명」의 내용중 「유급(有急) 무급(無急) … 그리고 비유상리무상(非有想利無想)」 부분은 「유색(有色) 무색(無色) … 그리고 비유상비무상(非有想非無想)」의 오식이므로 바로 고칩니다.

"바벨과 하나될 때 힘 솟아요"



산문박의 수難

역도 국가대표 전 병 관

"수행자 자세로 올림픽 2관왕 이룰터"

인간한계 도전때마다 불심으로 극복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태릉 선수촌. 선수 숙소인 '올림픽의 집' 터줏대감 전병관(26) 선수가 잠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12년째 맞는 선수촌 생활이기에 기계적으로 잠이 깨건만 몸을 이부자리에서 빼내기까지에는 매번 숱한 갈등과 겨뤄야 한다.

새벽 7시. 운동장에 모인 동료선수들과 간단히 몸을 풀고 구보로 새벽운동을 마친다.

아침시간. 식판을 들고서 또다시 싸움이 시작된다. 먹고싶은 음식보다는 체중조절을 위한 식단을 마음속으로 짠다. 이 식단에 따라 더도 덜도 없이 먹거리를 식판에 담아 자리에 앉고 만다.

한바탕 수선스럽게 아침일과를 마치고 본격 훈련에 앞서 갖는 휴식시간. 오늘도 불가리아 페샬로프 선수와의 한판 승부를 위한 대비가 시작됐음을 느낀다. 92년 올림픽 금메달을 딴 이후 93년 94년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연거푸 참담한 패배를 안겨주었던 페샬로프. 내년 올림픽에 앞서 금년에는 꼭 기선을 제압해야만 한다. 운동이라는 것도 생명이 있어서 큰대회를 앞둔 시합에서 기선을 잡지 못하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82년 전북 진안 마령중 1학년 때 시골소년 전병관은 체육교사의 눈에 띄어 역도라는 생소한 운동을 시작했다.

6개월만에 전국중학 랭킹 1위에 오르더니 이듬해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히는 신기(神技)를 보였다. 그리고 곧장 15세라는 최연소의 나이로 대표팀에 발탁되어 오늘까지 인간의 한계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신기록만 30-40여차례를 갱신하면서 각종 경기에서 정상의 맛도 보았다. 92년에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운동선수의 꿈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예전엔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성적이 부진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막상 정상에 오르고 보니 기량은 더욱 성장한 듯 하건만 정신력이 발처주지 않았다.

"자질을 떠나 훈련하는 모습만 지켜보면 세계적인 선수는 저렇게 태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올림픽때 감독이 말한 것처럼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전병관이었다. 다행히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정상을 차지해 어느 정도 기력을 되찾고 있다. 역시 정상은 탈환하기보다 지키기가 더욱 어려움을 느낀다.

오전 훈련시간. 역도체육관에 잠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실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비장함이다.

역도는 단순히 바벨을 들어올리는 운동이 아니다. 손가락 하나의 위치변화로 5kg의 차이가 나고 발 사이의 각도에 따라 많을 때는 10kg을 더 들을 수 있다.

그래서 15년째 잡은 바벨에서 얻은 것은 역도란 복잡하고 세밀한 운동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비인기종목인 역도를 왜 하는지 궁금해 한다. 그것은 스님들의 출가사연을 궁금해 하는 세속인들과 비슷한 궁금함이다. 직접 접해보지 않고는 모르기 때문이다. 운동선수는 곧 수행자다. 하루를 훈련하든 1년을 훈련하든 시작과 끝이 흐트러짐 없이 똑같아야 한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큰 뜻을 가늠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목표를 향해 초지일관하는 것은 운동선수나 수행자가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역도선수에게는 바벨을 들어올렸을 때의 성취감이 있다. 그것은 인간다움이다. 가장 신사적이고 당당하게 한 인간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예전에 호남지방에는 '돌돌 올리기'가 성행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아름드리 돌덩이를 단오때 들어올리는 것이다. 이 돌을 들어야 성인으로 취급받았고 노동력도 반품에서 온품을 받게 된다. 바로 한사람의 완전한 탄생을 뜻한 것이다.

어쩌면 이맛에 탐닉하여 바벨과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적으로 살아왔는지 모른다.

오후 훈련시간. 유난히 추운 금년 겨울의 역도훈련장 안이 선수들의 열기로 후끈하다.

자세를 갖추고 호흡을 정리한다. 바벨에 손을 대고 하나-둘-셋. 이때다. 바벨과 몸이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되자 온몸에서 순간적인 힘이 솟는다. 단 1-2초의 짧은 시간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바벨의 무게마저 느끼지 못한다. 무념무상의 순간이다. "내가 없으니 바벨 너조차 없어지는구나." 잠시후 빠- 소리와 함께 시야로 관중과 심판이 들어선다.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순간이 바로 이런 맛일까.

하루면 이렇게 30톤 분량의 바벨을 들어올린다. 메달을 목에 걸기까지에는 수십만톤의 바벨을 들어야만 한다. 그러나 정작 메달의 획득여부가 바벨과의 싸움에서만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에 앞서 일주일 전부터 체중과의 싸움이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다. 3일전부터 물 이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시합전날에는 물까지 중단해 버린다. 배고픔은 견딜 수 있지만 갈증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그래서 역도는 체중조절까지 합쳐 두번의 시합을 한다고 한다. 3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서 용상에서 1백62.5kg을 들어올리다. 59kg의 몸무게 3배를 들어올리는 것을 일반인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해 낸다. 전병관선수뿐 아니라 역도선수라면 누구나 해내야 한다. 그것은 철저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가능하다. 자신과의 오랜 싸움에서 이겼을 때 바벨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루 훈련이 끝나고 다시 숙소. 오늘 하루의 훈련을 복기한다. 바벨과 몸이 얼마나 일치되었는가. 하체, 허리, 어깨에서 뿜어나오는 힘과 바닥의 탄력이 동시에 바벨에 전달돼 물흐르듯 바벨을 올리는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그러나 분득 지나온 하루가 싸움만으로 일관했음을 느낀다. 일념으로 달려온 순간순간이 기록경신을 위한 싸움이었음에 몸서리를 친다. 싸움이란 곧 상대가 있음을 뜻한다. 이미 상대를 느낄 때는 무념무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훈련은 내일도 계속된다. 자신과의 싸움까지도 버리기 위해 겪어야 할 숱한 시행착오. 이것이 지겹지 않은 것을 보니 철저한 수행자의 근성만은 잃지 않은 듯 하여 다행이다.

〈이준엽 기자〉

1995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출가희망자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 (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2. 8 본교 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예정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2월 23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511-1080, 511-2026·2027·2028, 조계사앞 삼보원:732-9904, 견지불교사:739-3032
부산영광도서:816-9500, 대구 제일서림:424-0801, 인천 대한서림:762-7337
광주 나라서적:222-2828, 대전 문경서적:252-8558, 수원 교학사:251-3928
마산 학문당:46-2925, 전주 홍지서점:88-5311, 청주 일선문고:53-2360
울산 세종서점:74-1265, 포항 학창서림:46-2120, 강릉 강릉서점:645-4373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511-1080, 511-2026·2027·2028)

삼 화 불 교 대 학 135-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FAX 511-1080

「실록」속 불교사료 한데 모은다

동국대 불문연 「역주 조선왕조 …」 3월초 첫선, 「한영불교사전」도 발간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난 불교관련 기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 번역된다.

'조선왕조실록 불교관계 기사(記事) 역주(譯註)작업'과 '한영불교사전 발간' 사업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 의해 본격화 되고 있다.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서윤길)은 지난해 7월부터 역주작업을 시작, 증의(證義) 및 윤문을 거쳐 다음달 초에 〈역주 조선왕조실록 불교관계 기사〉 제1권 을 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자료수집 및 기획단계에 들어가 표제어 선정 및 카드작성을 완료하고 초고 집필에 들어가는 〈한영불교사전(Korean-English Buddhist Dictionary)〉 발간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교문화연구원이 지난해 6월부터 조선불교 연구의 기초 자료집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조선왕조실록 불교관계기사 역주작업'은 그간 불교관계 기사가 방대한 왕조실록 가운데 산재해 있어서 실제 연구자에게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한 실정을 고려할 때 불교학 연구의 중요한 기본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불교학의 국제화와 세계 전파를 위해 불교문화연구원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불교전적의 영역화 작업을 위한 기초 자료집으로서 기획된 〈한영불교사전〉 발간계획도 세계불교와의 국제적 교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주목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중의 불교관계 기사를 발췌 역주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조선왕조실록 불교관계 기사 역주작업'은 완전 한글 번역을 방침으로 98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편집 배열은 조선왕조실록의 순서에 따르고, 번역문은 쉽고 부드러운 현대문으로 하면서도 주석은 정확한 출전과 해석을 달아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도록 했고,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 색인을 별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란 것이 권탄준 상임연구원의 설명.

한편, 〈한영불교사전〉의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 김용표 상임연구원은 "불교 일반용어의 영역에 있어서 산스크리트, 팔리, 한자어 등의 원의에 가까운 어휘를 선택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히면서, "이 작업은 기존 불교용어의 영역(英譯)이 서구식 격의(格義)불교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염두에 두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96년 12월에 발간될 〈한영불교사전〉의 특색은 무엇보다도 한국불교문화에 관련된 용어의 영역과 그 해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서윤길 원장은 "총 3억1천9백71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본 연구원의 2대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불교학 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한국불교학' 19집 발간
'원측' 등 논문 13편 실어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는 최근 〈한국불교학〉 제19집을 발간했다.

이번 논집에는 당나라 서명사(西明寺)의 원측과 동명이인인 불국사 원측화상의 존재를 밝힌 「불국사의 화엄법사 원측에 대하여」(김영태)와, 불교의 제1계율이 간디의 윤리학에 끼친 영향을 탐색한 「간디의 윤리학에 끼친 불교의 영향」(김선근), 조선불교청년회의 창립, 활동, 침체와 재기에 이르는 제 문제를 분석해 일제의 사찰정책에 대항한 한국불교계의 극복의지를 정리한 「조선불교청년회의 사적 고찰」(김광식) 등 총 13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해인사 퇴설당 전경

해 인 사

春秋多佳日(춘추다가일)
義理爲豊年(의리위풍년)
精聽魚讀月(정청어독월)
笑對鳥談天(소대조담천)
雲衣不待蠶(운의불대잠)
禪宮寧須稼(선실영수가)
石鉢收雲液(석발수운액)

춘추로 좋은 날 많더니
의리(義理)의 풍년 들었네.
고요한 밤 고기가 달 읽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이 게송은 경허스님이 지은 것이다. 또 퇴설당의 주련도 스님의 친필로 전해지고 있다. 경허스님은 1899년 바로 이 퇴설당에서 동수정해동생도솔동성불과계(同修定慧同生兜率同成佛果契)를 결사했었다.

퇴설당의 최초창건은 언제인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1817년 성안(聖岸)대사가 중건한 이래 해인사의 선방으로 쓰여 왔다가 1983년부터는 총림방장실로 사용됐다. 전통이 있는 선원에서 도솔계가 결사된 것은 깊이 생각해 볼 과제이기도 하다. 경허스님의 체취가 남아 있는 퇴설당에서 93년 11월 성철 큰 스님이 입적했던 점도 특기할 사실이다.

〈안동 경안중학교 교사〉

자연과의 조화 노래한 경허 선시

못으며 새와 천문(天文)을 이야기 하네.
누더기면 그만인걸 누에칠 시기 기다리지 않네.
선탕에서 어찌 농사는 바라는가?
돌 바루에 운액(雲液)을 거두리.

해설 선의 경지에 몰입한 기쁨을 나타낸 게송이다. 선정에 몰입된 기쁨을 자연과의 조화로 나타낸 선시는 많다. 이 게송에서의 경우도 물고기 달 새 구름 등을 두루 대입해 확트인 선열(禪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의 운액(雲液)은 술을 가르키는 다른 말이다.

다양한 주제 다뤄

94 후기 불교학 박사논문

94학년도 후반기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들은 예년에 비해 다양한 주제로 인접학문과의 교류를 시도하는 등 교학(敎學)과 인물 중심의 불교학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다양한 연구방향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박사 논문들은 비교종교학 3편, 경전연구 1편, 인물연구 2편, 불교미술 2편, 불교사학 2편, 불교사회복지학 1편으로 고른 연구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불교 관련 석사학위 논문은 △〈법화경〉의 방편사상에 대한 연구/최은영(고려대) △미륵사상과 삼국의 사회적 이상 형성에 관한 연구/옥경호(서울대) 등 모두 40여편 이상이 나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94 후기 불교학 박사 논문>

분 류	논 문 제 목	학위취득자(대학)
비교종교학	가우다빠다의 분생설과 용수의 중도설	문을식(동국대)
	불교 권화사상의 한국적 전개와 대순사상 연구	윤기봉(동국대)
	기화(己和)의 사상에 관한 연구	양현규(전북대)
경전연구	열반경의 계율사상 연구	신성현(동국대)
인물연구	세친사상의 연구:〈석궤론〉을 중심으로	이종철(동경대)
	태현의 유식철학 연구	방 인(서울대)
불교미술	17세기 불전의 장엄에 관한 연구	이강근(동국대)
	경주지역 신라조각의 미의식 연구	이순자(동국대)
불교사	불교와 인도고대국가 성립에 관한 연구	박금표(숙명여대)
	신라법상종 연구	김남윤(서울대)
불교사회복지	불교사회복지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연구	이혜숙(동국대)

세친 '석궤론' 최초로 조명

유식학의 연기관 · 대승사상 특징 밝혀

이종철씨 박사논문



◇이종철씨

유식학의 창도자 세친(320~400)의 사상적 변모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돼야 할 논서로 지적돼 온 〈석궤론(釋軌論)〉을 연구한 논문이 국내의 최초로 나왔다.

일본 동경대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박사학위논문으로 통과된 이종철씨의 「세친사상의 연구:〈석궤론〉을 중심으로」는 그간 〈석궤론〉의 산스크리트원본과 한역본이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전혀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씨의 논문은 티벳대장경 가운데 덕혜(德慧;6세기)가 저술한 〈석궤론〉에 대한 주석서 〈석궤론주〉의 티벳어역을 토대로 산스크리트원문을 복원함으로써 세친사상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것.

이씨는 불교의 초기경전인 〈아함경〉은 물론 대승경전까지도 불설(佛說)로서 인정하기 위한 해석규범을 규정한 세친의 초기저술 〈석궤론〉은 〈반야경〉 등의 대승경전을 밀의(密意)라는 해석학적 관점에 입각해 불설로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한 1950년대에 오스트리아의 후라우와르너(E. Frauwallner) 등이 주장한 '〈아비달마구사론〉의 저자인 세친과 〈중변분별론〉의 저자인 고세친(古世親)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세친2인설」을 문헌학적 검토를 통해 비판했다. 이씨는 불설의 본질적인 특징인 '연기'에 관한 세친의 어의(語義)해석을 밝히고, 그의 연기관의 특색과 불교사상사적 의의를 해명했다.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관음 · 지장기도에 대해 한 말씀을

문 스님께서는 관음정근이나 지장기도에 대해서는 한말씀도 언급하지 않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 · 김정례)

답 '부처'란 이름 없는 것을 부처라 하지 이름 있는 것을 '부처'라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있다'고 하면 부처님은 없는 게 됩니다. '부처님을 우러러 모셔야 한다'는 말 속에 부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일체를 포함하기에 부처님이라 이름지은 것이고 부처님은 일체를 포함한 하나이기에 부처님인 것입니다. 찰나로 나투면서 일체에 응한다면 어느 때를 고정해서 '무엇이다'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부처님은 관세음도 되고 아촉도 되고 아미타도 되고 지장도 되고 약사도 되고 칠성 산신 용신 지신 신중 … 어느 것 하나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찰나로 돌아가는 살림살이를 하는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 노릇하고 때로는 아들 노릇 남편 노릇 형 노릇 사위 노릇도 하고 금방 친구가 되었다가 돌아서면 동료가 되고 선배 후배가 되기도 하는데 어느 노릇할 때의 나를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한 분 모셔놓은 것으로 일체가 다 포함됩니다. 물론 부처님 한 분 불상을 모셔 놓은 것도 중생을 위한 방편입니다만 부처님이 곧 일체인 줄 알면 모셔놓은 부처님이 그대로 내 마음이요, 내 생명이요, 내 몸이요, 그대로 관음이요 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이에겐 한 분을 모셔야 마음을 한데 모아 혼란스럽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 따로 찾고, 관세음보살 따로 찾고, 지장보살 따로 찾으면 따로따로 둘이 되고 셋이되니 일체가 한마음인 도리를 놓치게 됩니다. '따로따로'라면 벌써 나와 부처가 둘이 되기 십상이니 타력으로 흐를 염려가 있습니다.

참다운 방생이란 무엇인지요

문 요즘에 와서 물고기방생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 종단에서도 방생의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그러면 참다운 방생은 무엇인지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 허의참)

답 예전엔 큰 비가 올때면 붕어나 미꾸라지들이 마당이나 길가에서 뒹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님네들이 그걸 주워다 물에 놓아주곤 했는데 그같은 생명존중이 하나의 의식으로 정착된 게 물고기 방생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물론 그것도 엄연한 방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숭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생한답시고 잘 노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다시 풀어주는 의식이라면 그것은 놀부방생이지 참다운 방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 고향에서 오순도순 잘 사는 사람들을 징용 나가라고 잡아갔다가 해방이 되어서 풀어 놓아준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아직도 이역만리에서 고향을 그리워 눈물짓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요. 풀어주었다 해서 그게 방생이겠습니까.

진정한 방생은 이웃과의 나눔이요 생명사랑입니다. 먹지못해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게 진짜 방생입니다. 물론 무주상이어야 공덕이 수승하겠지요. 뿐만아니라 일상 생활 중에 항시 내 욕심 채울 생각을 버리고 나와 이웃, 심지어 자연까지도 하나라는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방생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놀부방생은 결코 방생이 아닙니다. 흥부방생이 방생입니다.

천도재를 못지내 마음이 편찮아

문 어느 사찰에서 천도재를 지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만 살림 형편이 여의치 않아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이 편칠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산 남구 광안2동 · 이영순)

답 자식이 물에 빠지게 되면 부모는 자신이 빠져죽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들어 건지려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조건없는 사랑입니다. 위로 조상님 생각하기를 내리 사랑과 같이 한다면 부모 · 조상과 나는 그대로 한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형식이야 대수이겠습니까. 상 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재를 올린다해도 형식에 그친다면 그것은 조상의 중생적 모습만 보고 조상님의 참 근본인 부처자리를 보지 못한 것이니 오히려 조상님들이 부끄럽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조상이, 나와 부처가 하나인 줄 안다면 아니 간절하게 그런 마음을 지닌다면 재를 지낼 때 시주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마음의 떡 그것만으로도 족할 것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으시다니 찰떡 한덩이 둥그렇게 빚어놓고 초 · 향 · 맑은 물 한대접으로 지낸들 마음이 문제이지 적다 많다 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 간절히 안으로 고하면서 떡 한덩이 올려 놓으면 그 떡 공양으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먹고도 되남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주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설사 촛불 하나 못 밝혔다 해도 마음의 촛불을 밝힐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천도재를 하면서도 제도해 주는 부처님이나 기도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나, 또 그것을 받는 조상의 마음이 한자리인 줄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지 못하는 만큼 거리는 멀어 집니다.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대 원 불교대학

•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 교육기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불교학과 { 출강과정 ○○명 / 통신과정 ○○명
2. 지원자격: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2월말일까지
5. 교 과 목: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및종교학	원전강독 I

6. 특기사항: 졸업후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 140-190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수 요 인터뷰

태고종 개혁·정재 사회환원 "새바람"



한국불교 태고원

이규범 이사장

대담:최정희 편집국장

—늘 양복차림이라 스님으로 보다는 아직도 태고종 '총무부장'으로 더 유명하십니다.

▲대전 보문고교시절 삭발한 후 75년에 태고종 총무부장직을 맡아 그 자리에서 12년간 일해서 그런가 봅니다.

—태고종이 역사적으로는 조계종과 그 맥을 함께 하지만 '태고종'을 들고 나온 것은 올해로 꼭 25년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태고종이 올들어 새로워 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고종사의 산 증인이고, 또 종무행정의 주역으로 2개월전에는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의 이사장직을 맡아 종풍쇄신에 앞장서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재단에서 광창에 대규모 복지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했는데, 재단법인 태고원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이 발효되면서 태고종은 종단목적법인으로 「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회」를 설립했어요. 종교법인법이 없으므로 민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종도들의 이해부족으로 해체하고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종 유지재단」을 만들었으나 역시 재산관리문제 앞에서는 이해가 엇갈리는군요. 그래서 다시 「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회」를 복원키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지재단을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제가 이사장에 선임됐습니다.

—이름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은 재산 앞에서 초연할 수 없는 중생심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누누히 당부하셨는데도 아마 그 공부가 어려운가 봅니다.

종풍쇄신 위한 결사

▲삼보정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거죠. 태고원은 정재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 즉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를 널리 펴는데 활용하면서 태고종의 종지종풍을 되살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한 계획도 바로 태고종 개혁과 발맞추는 불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창의 6만평 부지에 요양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을 설계하고 있고 또 울산에도 복지법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외형적인 불사가 바른 신행을 이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여법한 불교개혁이 이뤄지도록 동참회원인 34명의 평의원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론보다는 생활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꽃피우는 실천불교가 중요하니까요.

—기대가 큽니다. 특히 조계종이 개혁과정을 거쳐 '깨달음의 사회화'를 선언했고 포교와 교육, 신행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궤를 같이 하여 태고종에서도 '종단발전특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26일 각 분과위원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총무분과위원장까지 맡으셨는데 특위 구성의 배경과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고종이란 이름을 들고나온것은 25년전이지만 역사적으로 볼때 태고종은 뿌리의식을 가질만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태고종은 특색도 없고 긍지를 갖지 못하고 열등의식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더 심하게 표현하면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있다고 할까요. 걱정하는 눈으로 본다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마음이 모아져 종단 중흥을 위한 결사 즉 종단발전특위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특위에서는 종단발전과 도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종지종통을 확립시켜 빛깔있는 종단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관념적인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종풍쇄신을 하려는 거죠.

예를들면 하루 한시간씩 실참실수를 한다든지, 하루에 한가지씩 이타행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합니다.

—불교계의 이같은 자각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조계종과 태고종이 40년 묵은 감정을 풀기위해 종단대표들이 마주했는데 이번에는 꼭 '분규사찰'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태고종측 사찰분규 종식위원회 위원장이시므로 누구보다 관심이 크고 어깨도 무거우시 겠습니다.

실천불교 운동 앞장

▲양종단은 종조와 종지가 한뿌리였음에도 이교도보다 더한 가슴아픈 분쟁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 상호 양보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죠. 어느쪽도 자기 이익을 앞세우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저를 비롯해 양측 실무자들이 자주 접촉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고 양쪽 모두 해결될 것이란 확신과 열망을 갖고 있으므로 좋은 결실을 기대해 봅니다.

—조계·태고의 미해결 사찰문제를 놓고 일부에서는 봉원사 유휴지 매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팔 것인가, 안 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 문제는 제가 단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판다고 해도 재산처분이란 단순논리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휴재산을 좀 더 뜻있게 활용할 수 있다면 자산의 용도변경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89년에 거론됐을 뿐 최근 다시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태고종 승적을 가진지 35년, 교계에서 몇 안되는 '행정통'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총무원에 들어 온지 올해로 꼭 20년입니다. 저로서는 나름대로 했지만 '부처님 밥' 축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태고원'을 잘 운영하여 태고종의 발전과 함께 21세기 한국불교를 새롭게 여는데 일조를 더할 수 있도록 남은 여생 다 바치겠습니다.

〈정리=이경숙 기자〉

약 력

- 1942년 3월20일 청양 生
- 1964년 동국대 불교학과, 1967년 석사과정 수료
- 1969년 용봉대화상 은사로 득도
- 현재 태고종 중앙종회 부의장, 천중사 주지, 월간 「불교」사 사장

"평창요양원등 각종 복지불사 주력할터"

'분규사찰' 조계·태고종 상호양보로 해결

나의 수행일기

박충일 <대한인쇄문화단체협회장>



"삶의 울타리 부처님 법향"

'불광' 창간등 인쇄포교 인연에 감사

나는 감히 수행을 했다고 남들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 어머님께서 거창 연수사에서 기도 끝에 낳았다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며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다르게 수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만 내게 다가오는 인연의 끈들로 내 삶의 울타리를 엮어 왔기에 크게 부끄럽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 삶의 울타리는 누구 못지않게 부처님의 법향으로 장식된 것이란 자랑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나의 생활은 부처님 법의 존귀함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불교와의 인연은 동국대학을 입학하면서 내 삶의 현실로 묶여져 왔다. 1959년이었다. 당시 동국대 총장이었던 백성욱 박사는 신문방송학과 신설을 위해 동국대에 인쇄소를 설치했었다. 그리고 인쇄소에서 일을 할 학생을 모집했는데 그때 인쇄소에서 일했던 근로장학생들은 별도의 기숙사까지 가졌었다. 그 근로장학사에서 만난 동료들이 지금은 불교계 안팎의 중진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이종찬 정용길 성용길교수라든가 김희두 부장검사등이 그들이다.



아뭏든 나는 그곳에서 인쇄밥의 맛을 알게 됐고 지금까지 인쇄업을 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문을 연 신흥인쇄주식회사는 나와 불교의 인연을 더욱 두텁게 쌓는 교량이 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가 펴내는 「불교학보」를 30년이 넘도록 내가 맡아 인쇄하게 된 것도 등대에서 자란 나의 인쇄인연 덕택이다. 최근까지 「불교학보」는 31집이 나왔는데 그 모두를 내가 인쇄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겐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나는 어머님의 기도와 내 출생 사이에 놓인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보답은 다하지 못 했다고 생각한다. 그 은혜 갚음의 끝은 내 평생을 두고도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인쇄업을 하며 불교를 위해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인쇄업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두가지다. 하나는 월간 「불광」을 창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불교신문」과의 인연이다.

1974년 11월에 나는 광덕스님께 제안을 했었다. "스님, 스님께서는 법문을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시지만 저는 인쇄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책을 하나 만들어 전법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스님은 내게 너무 큰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하시며 난색을 보이셨다. 나는 다시 간곡히 청을 드려 잡지 하나를 만들자는데 스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월간 「불광」의 빛이 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광덕스님께서 서문부터 끝까지 원고를 쓰셨고 나는 열심히 책을 만들었다. 신도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하도록 좋았다. 그래서 대각사에서 매주 한번씩 광덕스님을 모시고 법회도 갖게 됐다. 그 법회가 바로 불광법회이고 법회가 활성화되어 잠실에 광덕사까지 서게 됐다.

그런 과정속에서 나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력을 끝없이 느낄 수 있었다. 광덕스님의 마하반야바라밀 신행운동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제 한국불교의 큰 핵이 되었다. 또 내가 2년간 일체의 부담을 짊어지고 인쇄를 하며 시작한 「불광」은 지난해 문체부로부터 우수잡지로까지 선정됐으니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또하나의 보람은 「불교신문」과의 인연이다. 조계종이 조계사와 개운사로 나뉘어져 내분을 겪고 있던 때였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셨던 석주스님과 총무부장 광덕스님으로부터 '종단 기관지 대한불교 신문이 인쇄시설이 없어 폐간 위기에 처해 있으니 신흥인쇄를 대한불교 공무국으로 해달라'는 급한 연락이 왔다. 나는 존경하는 스님들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신흥인쇄란 간판을 내리고 「대한불교 공무국」이란 간판을 걸었다. 나는 아직도 그때의 현판식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볼때마다 감회가 새로울 뿐이다. 그 후 2년간 나는 사업의 주요 거래선인 정부의 인쇄하청을 일체 받을 수 없었다. 덕분에 회사는 무척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처님 일을 한데 대한 보람은 크다.

대학을 다닐때부터 30년이 넘도록 사업을 하고 있는 오늘까지 나는 여러 큰 스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광덕스님과의 귀한 인연은 내 삶을 불지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쇄밥의 맛에 감사드린다. 인쇄업을 통해 불교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인연에도 감사드린다. 지금 맡고 있는 불광법회 회장이란 자리에도 나는 겸하한 마음과 수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마하반야바라밀.

21세기를 • 이끌어갈 • 선재를 • 찾습니다

1995학년도 법사원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학(불교과)통신과정
대학원(법사원)직강 및 통신과정

국내최초 영상비디오 통신강좌 실시!!

법사원 불교대학 각 과정 2년제

■ 교계 정예포교 지도자 양성목적으로 설립함.
■ 대중불교운동과 포교능력배양을 위한 최고의 교과과정과 강사진.
■ 저렴한 학비로 信·解·行과 복덕이 원만한 지도자 배양.

1. **모집인원**:불교과 통신과정 ○○명, 법사원 직강 ○○명, 통신과정 ○○명
   연구원:96년 개설예정
2. **입학자격**:불교과/고졸이상의 학력자·법사원/불교대학 2년 졸업자 이상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1995년 1월 1일부터 2월 25일 18:00까지
4. **전형방법**: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5. **면 접**:법사원 지원자는 2월 26일 면접(오전 10시부터)
6.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통(본대학 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최종학력증명 1통 4) 반명함사진 3매

● **특 전** ●
1) 불교과 졸업 후 법사고시 합격자에 한해 법사증 수여, 법사과에 입학 자격.
2) 각종 장학제도 마련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장학금을 지급함.
3) 법사원 졸업자는 법계고시를 보며 합격자는 법계품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 교육부에 문의 바람.

교육과정 및 과목·강사

대학(불교과)은 통신과정으로 녹음테이프와 교과서를 공부하며 대학원(법사원)은 출석수강 및 통신과정이 있으며 통신과정은 **국내 최초로 비디오 테이프로** 지역분교에서 공부하게 됨.
서울, 경기 지역은 본교에서 따로 공부함.

〈대학〉 불교과 2년

	1 학 기	2 학 기
1학년	불타의생애 (목정배)	불전개설 (목정배)
	종교학 (김항배)	인도불교사 (전재성)
	인도문화(철학) (신성현)	종교사회학 (이동준)
	불교개론 (해주스님)	중국문화(철학) (고재욱)
2학년	원시불교개설 (조용길)	중국불교사 (차차석)
	대승불교개설 (권기종)	불교계율사상 (목정배)
	불교와사회 (박경준)	불교포교학 (김효성)
	한국불교사상개설 (목정배)	대승불교보살사상 (계환스님)

〈대학원〉 법사원 2년

	1-2 학 기
1학년	아함경 (목정배)
	법구경 목요논강
	천수경 (김효성)
	불교의식-이론과 실기 (운곡스님)
2학년	구사론
	범화경
	금강경

〈연구원〉 1996년도 예정

전공과목 선택		
열	반	경
기	신	론
화	엄	경
중		론
원	각	경
천	태	학

법사원 불교대학 학장 철학박사 목정배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사회(부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88-6 뉴장충빌딩 5층
전화(02)266-1827, 264-1827, 팩스(02)266-1827

지방분교 및 문의처 부산분교:(051)818-0575 어린이불교문화원 / 울산분교:(0522)65-2727 울산불교문화원 / 고양분교:(02)381-1234 성보사포교원 / 여수분교:(0662)651-4658 정회일 법사 / 원주분교:(0371)47-0617 불심사 / 김해분교:(0525)34-8807 조유식 법사 / 포항분교:(0562)44-7597 이인식 법사 / 대구분교:(053)941-0311, 954-7395 전순경 거사 / 이천분교:(0336)635-3748 심의래 법사 / 안산·시흥분교:(0345)498-7700~2 현법스님 / 한국스카우트 불교지도자회:735-8165 회장 김해인 법사·사무국장 최종규 법사 / 청주분교:(0431)271-8244 김용우 법사 / 경주분교:(0561)749-2395 박호봉 거사 / 제주분교:(064)22-5027 현차생 법사 / 안양불교문화원:(0343)72-7577 신숙례 법사 / 강화군:(0349)937-3272 공도식 법사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1〉

한국불교의 재래 소의경전 가운데 사미과 교재의 하나인 치문경훈(緇門警訓)을 다시 풀어본다. 치문경훈은 고려 공민왕때 태고보우(太古普愚)국사가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와 국내에 유포시킨 것이다. 치문(緇門)이란 먹물 옷 걸치고 입산수도한다는 뜻이다. 치문경훈은 중국 역대 고승들의 법어 중에서 특히 후학들을 경계한 것과 수도의 핵심이 될 내용들을 간추려 놓은 것으로 불교강원의 교재로 편입되기는 1695년 백암(栢庵)스님이 주석을 달아 출판한 때부터이다. 〈편집자 주〉

潙山大圓禪師警策(위산대원선사경책)

夫衆緣受身 未免形累 稟父母之遺體
부업계신수 미면형루 품부모지유체
假衆緣而共成 雖乃四大扶持 常相違背
가중연이공성 수내사대부지 상상위배
無常老病 不與人期 朝存夕亡 刹那異世
무상노병 불여인기 조존석망 찰나이세
譬如春霜曉露 倏忽即無
비여춘상효로 숙홀즉무
岸樹井藤 豈能長久
안수정등 기능장구
念念迅速 一刹那間 轉息即是來生
념념신속 일찰나간 전식즉시래생
何乃曏然空過
하내향연공과

헤아려 생각하건대 과거 생의 업식에 매어 받게 된 이 몸은 돌고 도는 유전(형루)을 면치 못함이라

부모의 몸(정·혈)을 빌고 뭇 인연을 빌어(내 몸 속 수많은 생명체들의 인연을 빌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비록 사대육신이 부지하나 항상 서로 등지니(정신·육체가 등지니) 덧없이 늙고 병들고 (죽고사는 게) 사람으로서는 기약 할 수 없노라

아침에 살았다가 저녁엔 죽어없어지니 찰나에 세계를 달리한다

비유하자면 봄 날의 서리요 새벽의 이슬과 같아 어느 새 없어지며

물 가의 위태로운 나무같고 우물 속에 갇혀 등나무 줄기에 매달린 꼴이라

어찌 오래 간다고 하리오

생각생각이 어찌나 빠른지 한 찰나 사이 숨 한번 돌리면 곧 다음 생이니 어찌 편안하게 헛되이 (세월을) 보내리요.

> "한 찰라 사이
> 곧 다음 생이니
> 어찌 헛되이 보내리오"

父母 不供甘旨 六親 固以寒離
부모 불공감지 육친 고이기리
不能安國治邦 家業 顧惜纖嗣
불능안국치방 가업 돈연계사
緇離鄉黨 剃髮稟師
면리향당 체발품사
內勤剋念之功 外弘不淨之德
내근극념지공 외홍부정지덕
迥超塵世 覺期出離
형탈진세 기기출리
何乃緣著戒品 便言我是比丘
하내재등계품 변언아시비구
檀越所須 喫用將住 不解忖思來處
단월소수 끽용상주 불해촌사래처
訓言法網合供 喫了
위언법이합공 끽료
聚論雜話 但說人間鄙話
취두훤훤 단설인간잡화
然則一期虛喪 不知喫是苦因
연즉일기진락 부지락시고인

(그래서) 부모를 좋은 음식으로 받들지도 않고 부모 형제 처자권속을 한사코 버렸으며,

나라를 평안케하려하지도 않고 가업도 집어던져 대를 잇지 않으며,

향당(세상 일)을 멀리 여의고는 머리깎고 스승에게 계를 받았던 것이다

(그럴진대) 안으로는 부지런히 망념을 쉬어 공력을 기르고 밖으로는 (일체 경계를 둘 아니게 보아) 다툼없는 덕을 넓히고,

티끌같은 세상 멀리 여의기로 기약해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고작 (형식적인) 계품이나 따지고 '나는 비구로 소이다' 으시대며

시주하는 이의 공물을 먹고 쓰되 그 마음 낸 자리를 헤아려 생각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 법다이 공양을 받을만 하다하여 먹어 치우고는,

모여서 숙덕거리며 (시끄럽게) 단지 인간사 잡스런 얘기거리나 지껄이는 가.

그렇게하여 한 때는 즐거울지 모르나 그 즐김이 바로 고해에 나고드는 까닭이 되는 줄을 모르는도다.

功德須座 未嘗返省
공덕수좌 미상반성
時光奄忽 歲月遒邁
광겁순진 시광엄몰 세월차타
受用殷樂 施利豊厚
수용은번 시리농후
動經年載
동경년재
不擬棄離 積聚滋多
불의기리 적취자다
保持弘廣
보지환질

僧有勅 戒勖比丘 進道毀身 三常 不足
도사유칙 계욱비구 진도엄신 삼상 부족
人多於此 貪味不休 日往月來 邈然自遠
인다어차 탐미불휴 일왕월래 삽연백수

일찍부터 억겁을 그런 모양으로 육진경계를 따라돌면서 되돌려 (자기 마음자리를) 비출줄 몰랐으니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에 받아 쓰는 것은 가지가지로 늘어나고 시주물 탐하는 마음 더욱 짙고 깊어졌느니 해를 거듭하도록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 여의려 하지 않고 짓는 바 더욱 쌓여 허깨비같은 육신·물질 붙들고 매달리누나 부처님께서 교칙을 두어 비구에게 계행에 힘쓰라 하시되 도에 나아가 몸을 엄정히 함에는 삼상(의복·음식·수면)이 넉넉해서는 안된다 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삼상을 탐하고 즐기기를 그치려하지 않으니 날이 가고 달이 지나매 바람 건듯부는 사이에 백발이 되고만다.

龍眼

수도인 경책한 선문지침서

위산대원선사경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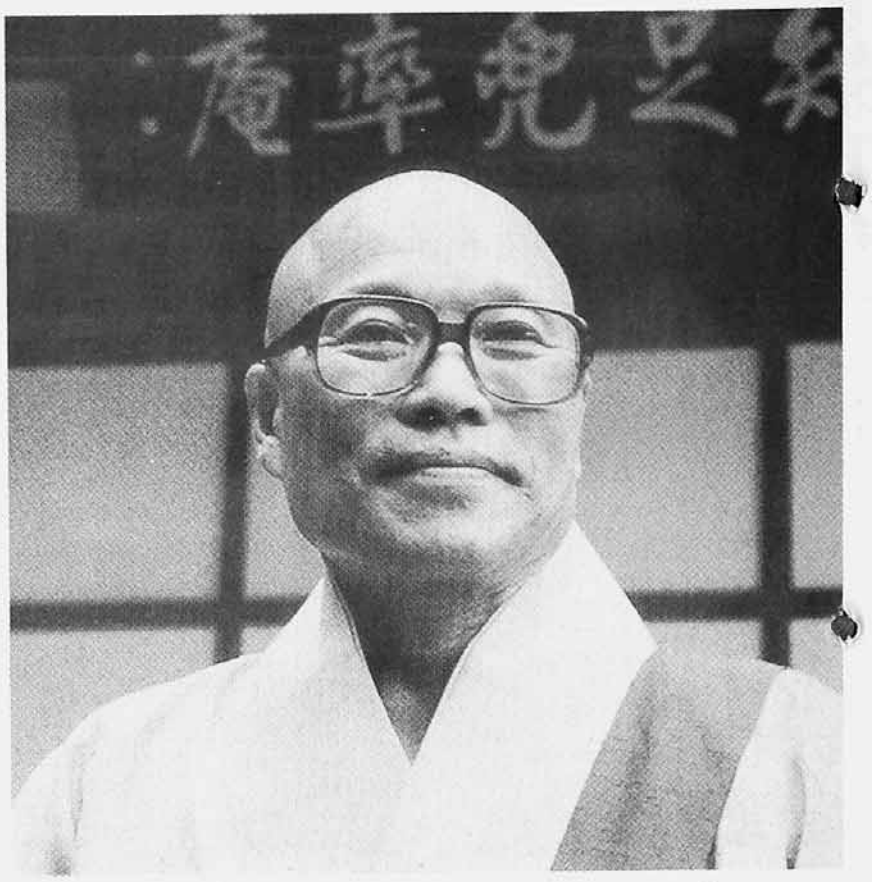
중국 당나라때 스님 위산 영우(靈佑 771~853) 선사가 수도인을 경책한 글로 선문의 지침서 격.

위산영우 선사는 위앙종(潙仰宗)의 초조(初祖).

지상 법석

"요행수 바라는 기도

일타스님 은해사 주지



올바른 기도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수십년을 절에 다닌 신도들조차도 요행수를 바라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요행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햇빛 아래에 있다고 할지라도 형상이 바르면 그림자가 바르고, 형상이 길면 그림자도 길고 형상이 짧으면 그림자도 짧은 것입니다. 이처럼 불보살의 광명정대한 자비는 언제나 중생의 정성과 함께 하지만, 중생은 요행수를 바라고 기도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측신(厠神)에게 기도를 하면 재수가 좋다'는 말을 들으면 변소에 밥을 가져가서 기도를 하고, 아무개가 쪽집게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곳을 찾아가 점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신(神)이 내린 용한 점쟁이라 할지라도 찾아가는 '내'가 아는 것 이상은 모릅니다. 하다 못해 '내'가 잠재의식 속에서라도 알고 있는 것이라야지, 점을 보러 가는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알아 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전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넘겨짚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에 의지하여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번민 집착 마음의 병

적어도 불자라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자기 속을 차리고 자력(自力)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행수를 바라고 하는 기도는 마음에 잔뜩 때를 끼게 하고, 언젠가는 사도(邪道)로 빠져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진실한 불법은 10만 8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업장이 맑아지기는커녕 더욱 두터워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성연기의 뜻을 바로 알아서 요행수를 떠난 자력의 기도를 하고 자력의 참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업장은 저절로 맑아지고 복은 저절로 찾아들게 마련입니다. 불가에 전해지고 있는 중국 당나라 때의 무착문희(無著文喜 : 820~900) 선사와 문수보살(文殊菩薩)과의 일은 자력의 기도, 자력의 참선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착스님은 출가하여 문수보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스님은 문수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親見)하기 위해 항주에서부터 오대산(五臺山, 일명 淸凉山)까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을 내던지는 오체투지(五體投地)의 절을 하며 갔습니다. 마침내 오대산 금강굴(金剛窟) 부근에 이르렀을 때 한 노인이 소를 거꾸로 타고 오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는 어떤 사람인데 무엇하러 이 깊은 산중에 앉아 있는가?"

"예,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왔습니다."

"문수보살을 가히 친견할 수 있을까?"

말끝에 노인은 그 순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밥 먹었는가?"

"안 먹었습니다."

"순 생짜로군."

그리고는 소를 타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착스님은 노인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느껴 뒤를 따라갔습니다. 얼마쯤 가니 금색이 휘황찬란한 절이 나타났습니다.

"균제(均提)야."

노인이 시자를 부르자, 시자는 뛰어나와 소를 받아 매었습니다. 잠시 뒤에 차가 나왔는데 다완(茶椀)은 모두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차를 마시니 몸과 마음이 형언키 어려울 정도로 상쾌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차가 있다니.'

혼자 감탄하고 있는데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 어디서 왔는가?"

"남방에서 왔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들고 다시 물었습니다.

"남방에도 이런 물건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런 물건이 없다면 무엇으로 차를 먹는가?"

"말법비구(末法比丘)가 계율을 지켜

△1929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남.
△1942년 통도사로 출가, 49년 통도사 강원대교과 졸업.
△51년 천화율원에서 율학 수업, 전통율맥을 이음.
△71년부터 해인총림 율원장·율주·금강계단 교수아사리가 되어 후학 양성.
△현재 조계종 전계대화상 및 은해사 주지

헛것에 의지말고 자력참선 정진해야

유지합니다."

"대중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혹 3백명도 되고 5백명도 됩니다."

무착스님은 노인의 질문에 웬지 싱거운 생각이 들어 되물었습니다.

"여기서는 불법을 어떻게 주지합니까?"

"범부와 성현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느니라."

"여기의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전삼삼 후삼삼(前三三 後三三)."

대중의 수를 물었는데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라니 …. 무착스님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뿐이었습니다.

1995학년도 법사를 육성하는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

통신 야간 법사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모 집 안 내

1. 모집학부 : 법사과정 · 오종교법사과정
· 오종대법사과정
2. 모집인원 : 출강 ○○명, 통신 ○○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자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오종교법사과정 = 1년
오종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 :
1995년 1월 5일 ~ 2월 28일까지

110 - 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737-5305 FAX (02)720-1836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 즉시 보내드립니다 *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 품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법사불교신문에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국제포교에 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함
· 각종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韓國佛敎法師總聯合會 附設
한국불교법사대학

110 - 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737-5305 FAX:(02)720-1836

정신 · 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 기아 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엄분 자연당 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엄불삼매수련 선관삼매수련 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 이 드 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식으로 효과보는 병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등 신경성 제증상
•암, 중풍, 혈압,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위장병, 변비, 간장병, 천식, 디스크, 신경통
•축농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악물중독 외

■ 수련장 :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용림선원
■ 안 내 : ☎ (0593) 34-1115~6

나무대자대비 관세음보살



35 × 70cm 수목관음도

관세음보살이 이땅에 나투심은
일체중생 번뇌를 멸하여
성불의 연을 지어가게 함입니다.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을 가정마다 모시고
우러러 예경하면 불심 증장과 함께
최상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관음도는 금산스님(대구예인협추대작가이 한점씩 정성들여 그리시고 청소년 포교기금 마련 및 불화모시기 운동진개를 위해 염가 보급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구입문의 : 02) 841-7165
•보급처 : 불교교육연구원 · 대동불교예술대학 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885-5

지상 법석

업장만 두껍게 한다

"他力에 의지할지라도 기도인은 진성연기의 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럭저럭 날은 저물어가고 무착스님은 노인에게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염착(染着)이 있으면 잘 수 없다."

마음에 번민과 집착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쉬어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계행(戒行)을 지키는가?"

"예,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염착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네는 여기서 잘 수가 없네."

닦아도 닦음이 없고 지켜도 지킴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애써 지켜야 하는 단계에 있으니 염착이라고 한 것입니다. 노인은 시자인 균제를 시켜서 무착스님을 배응하게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절 이름을 물으니 '반야사(般若寺)'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한 노인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동자여, 내가 대중의 수효를 물었는데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라 하셨으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대덕(大德)아!"

"예"

"이 수효가 얼마나 되느냐?"

무착스님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 법문을 청했습니다.

"동자여, 나를 위해 법문을 해주시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面上無嗔供養具 口裡無嗔吐妙香
心內無嗔是珍寶 無始無終得常

산하대지가 한 뿌리

쓸데없는 생각 말고 부지런히 참선하라.
날마다 하루 종일 누굴 위해 바쁠건가.
바쁜 중에 한가로운 소식을 알면
한 그루 연꽃이 끓는 물에 피리라.

莫妄想 好參禪 不知終日爲誰忙
若知忙中眞消息 一朶蓮生沸湯

이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크게 깨달은 무착스님이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보이던 절은 씻은 듯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오대산에서 돌아온 뒤에 공(空)과 색(色)이 화합되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여 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스님들이 도인이 되는 것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공양주(供養主)를 자청했습니다.

하루는 큰 가마솥에다가 죽을 끓이는데 갑자기 솥에서 상서로운 광명이 나타나더니 문수보살이 연꽃처럼 피어 올랐습니다. 이전에 꿈에도 그렸던 문수보살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대중들이 절을 하면서 경탄하였지만, 무착스님은 주걱으로 문수보살의 뺨을 후리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문수는 네 문수요 무착은 내 무착이니라."

그러자 죽의 방울방울로부터 천만의 문수보살이 나와 허공을 가득채웠고, 무착스님은 닥치는대로 주걱으로 쳤습니다. 이에 문수보살은 자취를 감추며 일러 주었습니다.

내가 삼대겁을 수행하였건만
오늘 노승이 혐의를 입고 돌아가는구나.
쓴 꼬두박은 뿌리까지 쓰고
단 참외는 꼭지까지 달도다.
爾三大劫修行 還被老僧嫌疑
苦瓠連根苦 甘瓜徹蔕甘

무착선사는 진성연기를 알아서 완전히 공(空)과 더불어 상응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 이외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사(邪)임을 알고 허공 속의 문수보살을 주걱으로 치면서 물리쳤던 것입니다. 진정 수행인이 온전히 공을 체득하게 되면, 그의 일거수 일투족(一擧手一投足)에는 아무런 조작도 없게 될 뿐 아니라 아무런 걸림도 없게 됩니다.

산하대지(山河大地)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를 이루고 천지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서, 천진난만한 세계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또 이런 경지에 들어가면 티끌 수와 같이 많은 세계가 그대로 진여(眞如)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참 마음자리의 공무(空無)를 체득하여 어떠한 걸림도 없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를 비롯한 각종 수행의 끝입니다.

조급·게으름 버려야

부처님을 돌로 만들었든 쇠로 만들었든 나무로 만들었든 기도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요행수를 바라지 않고 지극정성을 드리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복은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신앙심, 곧 타력(他力)에 너무 깊이 의존하면 마침내는 자기의 속까지 빼주게 되므로, 타력신앙을 통하여 일정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기도인은 반드시 자력(自力)을 가지고 타력(他力)을 믿어야 합니다. 곧 타력에 의지할 지라도 진성연기의 도리를 분명히 알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비결이요, 기도를 통하여 해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요긴한 가르침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모름지기 모든 생각을 비우고 들어야 합니다.

속효심도 내지 말고
나태심도 내지 말라.
슬금슬금 가다 보면
해돋을 때 아니올까.

이 옛 노래는 인생살이에 대한 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간다고 하여 해가 빨리 뜨는가? 아닙니다. 느릿느릿 간다고 하여 해가 늦게 뜨는가? 아닙니다. 해는 뜰 때가 되면 저절로 뜹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조급증도 품지 말고 게으름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법문을 들음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깨달음은 조급함이나 게으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함께 하는가? 텅 빈 마음과 함께 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비어 있을 때 법문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번뇌의 구정물이 꽉 찬 곳에 맑은 물을 부어 보십시오. 물의 탁한 기운이 묽어지기는 하겠지만 역시 구정물이 될 수 밖에 없듯이, 잘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에 법문을 담으려고 하면 제대로 담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곧 모든 번뇌망상을 비우라고 한 것입니다.

실로 법문을 들음에 있어서는 나에게 맞는다는 생각이나 맞지 않는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까지도 비워야 합니다. 법문을 잘한다 못한다.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생각도 모두 번뇌망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번뇌망상들을 완전히 비울 때 감로수(甘露水), 곧 감로의 법문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법문은 말로 설명하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빈 마음으로 설하고 빈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번뇌망상에 불과합니다. 이를 분명히 자각하여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듣게 되면 깨달음의 기연은 반드시 찾아들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법(法)의 문(門)을 열고 법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요긴한 비결입니다.

똑같은 법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도를 깨치는데 어떤 사람은 도를 깨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과 같은 광명을 뿜어내고 어떤 사람은 더욱 암담해지기도 합니다. 독을 만들 것인가, 젖을 만들 것인가? 보리(菩提, 깨달음)를 이룰 것인가, 생사를 이룰 것인가?

그 열쇠는 각자가 쥐고 있습니다. 마음 가득 번뇌망상을 담고 말만 배우고자 하거나 지식 충족의 수단으로 법문을 듣는다면 생사 이외에는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스스로가 온전히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들으면 틀림없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모든 선지식이 한결같이 말씀하셨듯이, 모름지기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들도록 합시다. 머지 않은 날, 틀림없이 깨달음이 찾아들 것입니다.

걸림없는 텅빈마음 체득이 수행의 끝

"번뇌망상 비워야만 감로법문 고스란히 담겨"

김 성 규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⑭



의사 기바

부처님 당시 뇌수술이나 장폐색수술이 행해졌다고 한다면 선뜻 믿기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질병은 의사의 힘만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인과 병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아무리 고치기 힘든 불치의 병이라 하더라도 고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기바가 행한 최초의 뇌수술에 대해서 〈사분율〉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왕사성에 한 장자가 있어 항상 두통을 앓고 있었다. 고치는 의사가 없었다. 많은 의사들이 진찰을 하고 여러 가지 처방을 내렸지만 모두 엄마 살지 못하고 곧 죽는다고 말했다. 어떤 의사는 일년 후에 죽는다고 했고, 어떤 의사는 7개월 후에 죽는다고 했으며, 또 어떤 의사는 7일 후에 죽는다고 했다. 그때 이 장자는 부처님의 제자중 병을 잘 다스리는 기바라는 명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기바를 찾아가 인사드리고 말했다.

"기바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오. 그러면 황금 백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기바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장자여, 나는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병은 지극정성으로 고쳐지는 것이지 돈이나 흥정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그 돈으로 편하게 지내십시오."

치료를 거절당한 그 장자는 왕을 찾아가 자신의 병을 호소하며 기바로 하여금 자신의 병을 치료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왕은 기바를 불러 그 장자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기바는 그 장자의 집을 가서 장자에게 어떻게 아픈지 병이 언제 처음 발생했으며, 증세가 어떤지 여러가지를 묻더니 장자에게 말했다.

"장자여, 나는 당신의 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바는 며칠동안 그 장자의 집에 머무르면서 장자에게 계속 음식을 짜게 먹게 하였다.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장자에게 기바는 술을 주어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하게 한 뒤,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자리에 똑바로 앉혔다. 잘 드는 수술 칼로 머리를 절개하여 뼈를 열고 골의 내부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썩었거나 단단해진 부분을 절제한 후 깨끗하게 닦아내고 유밀을 머리 속에 넣고 다시 뼈를 붙이고 머리를 가죽으로 된 실로 봉합하고 상처가 잘 낫는 좋은 약을 발랐다. 수술을 마친 기바는 수술하는 것을 지키본 장자의 친척들에게 절개해 낸 머리부분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벌레가 먹은 것 같은 이것이, 돌같이 단단해진 이것이 장자가 두통을 앓은 원인입니다. 이제 그 원인을 제거했으니 장자는 두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장자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기바는 장자에게 짠 음식을 먹게하여 주량을 늘려 술에 취하게 하였는데 술의 힘을 빌어 전신마취를 시켜 수술하고자 생각한 기바의 착상은 현대의학과 다들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알콜에 의하여 마취된 장자의 머리를 메스를 써서 머리를 열고 머리윗뼈를 열고 뇌의 내부로 들어가 병소를 제거한 것은 현대의 의술이 행하는 뇌수술과 조금도 다들바가 없음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후 기바는 몇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행하게 되며 이어서 장폐색 수술도 행하게 된다. 경전 〈대품 법의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어느 때 바라나사 장자의 아들이 근두놀이를 하다가 병을 얻었는데 소화가 안되고, 대변도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몸이 말라 비틀어지고 피부색이 점점 누른색으로 변했으며 혈맥이 팔다리와 온몸에 튀어 나왔다. 기바는 바라나사에 있는 장자의 집으로 가서 그의 몸을 살펴보고 만져보며 진찰하고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장막을 치게 하고 주위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장자의 아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기둥에 묶었다. 그리고 나서 잘 드는 칼로 뱃가죽을 째고, 꼬여 있는 창자를 들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보이면서 "이것이 병의 원인이다"고 설명하여 주었다. 그리고 난 뒤 기바는 꼬여 있는 창자를 풀어 원래대로 하고나서 배를 봉합하고 고약을 발랐다. 얼마후 장자의 아들은 예전과 같이 잘 먹고 대변도 잘 보게 되었다.

기바가 행한 의술은 기바의 뛰어난 천재성에 의한 것이지만 근본 정신과 방법은 부처님께서 기르치신 「사성제」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병(苦)이 생긴 원인과 병의 상황(集)을 정확하게 관단하여 가장 적절한 처방(道)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 병은 낫게(滅) 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성제」는 궁극적인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일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도 적용되는 만병통치 실천방법인 것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부처님의 가르침 '사성제' 의술로 실천
뇌·장폐색 수술방법 현대의학과 비슷

佛教聖地巡禮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태국 5일

₩595,000

서울-방콕(2박)-아유타야, 방파인, 수상시장, 새벽사원, 왕궁, 에머랄드 사원, 무암보란, 황금불 사원-파타야(2박)-방콕-서울

· 출발일 : 2月 / 16, 21, 23, 28 3月 / 2, 7, 9, 14, 16, 21, 23, 28, 30

대만 5日 ₩595,000	서울-대북-일월담(1박)-고웅·불광사(1박)-화련(1박)-대북(1박)-서울 2月/22 3月/1, 8, 15, 22, 29
스리랑카 6日 ₩1,070,000	서울-콜롬보(1박)-아누다라푸라-하바라나(2박)-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1박)-콜롬보(1박)-서울 2月/17, 24 3月/3, 10, 17, 24, 31
미얀마·태국 8日 ₩1,400,000	서울-방콕-양곤(1박)-파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페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2月/17, 24 3月/3, 10, 17, 24, 31

新春海外旅行

-최고의 여정·최상의 서비스·최대의 기쁨-

방콕·파타야 5日 ₩68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2月/18, 19, 22, 25, 26 (₩715,000) 3月/1, 4, 5, 8, 11, 12, 15, 18, 19, 22, 25, 26, 29
방콕·푸켓 5日 ₩795,000	서울-방콕(1박)-푸켓(3박)-서울 2月/16, 18, 19, 23, 25, 26 3月/4, 11, 18, 25 (₩725,000)
동남아 3국 5日 ₩745,000	서울-싱가폴(4박)-바탐·조호바루-서울 2月/17, 18, 20, 22, 24, 25, 27 3月/1, 3, 4, 6, 8, 10, 11, 13, 15, 17, 18, 20, 22, 24, 25, 27, 29, 31 (₩655,000)
방콕·푸켓·싱가폴 6日 ₩895,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싱가폴(2박)-서울 2月/16, 21, 23, 28 3月/7, 14, 21, 28 (₩795,000)
하와이 5日 ₩679,000(일급) ₩765,000(특급)	서울-호놀룰루(3박)-키내(1박)-서울 2月/16, 18, 22, 23, 25 3月/1, 2, 4, 8, 9, 11, 15, 16, 18, 22, 23, 25, 29, 30
미국 서부 버스 7日 ₩799,000	서울-LA(1박)-홀랙스뱁(1박)-라스베가스(1박)-후레스노(1박)-샌프란시스코(1박)-키내(1박)-서울 2月/17, 20, 24, 27 3月/6, 13, 20, 27
유럽 5개국 10日 ₩1,790,000	서울-영국-독일-스위스-이태리-프랑스-서울 2月/16, 23 3月/2, 9, 16, 23, 30
사이판 4日 ₩735,000	서울-사이판(3박)-서울 2月/16, 17, 19, 23, 24, 26 3月/2, 5, 9, 12, 16, 19, 23, 26, 30 (₩645,000)
괌 4日 ₩735,000	서울-괌(3박)-서울 2月/16, 23, 26 3月/2, 5, 9, 12, 16, 19, 23, 26, 30 (₩645,000)
호주·뉴질랜드 8日 ₩1,745,000	서울-키내(1박)-골드코스트(1박)-로토루아(2박)-오클랜드(1박)-시드니(2박)-서울 2月/16, 18, 19, 23, 25, 26, 27, 28 3月/2, 4, 5, 7, 9, 11, 12, 14, 16, 18, 19, 21, 23, 25, 26, 28, 30 (₩1,545,000)

新婚旅行

"새로운 출발, 허니문 전담팀이 권해 드리는 일곱색깔 무지개 여정"

방콕·파타야	5日	—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푸켓	5日	— ₩740,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방콕(1박)-서울	
	-전 일정 비디오 촬영 무료증정-	
대만(화련)	4日	— ₩520,000
	서울-대만(화련) 3박-서울	
괌	4日	— ₩670,000
	5日	— ₩785,000
	서울-괌(3박, 4박)-서울	
사이판	4日	— ₩670,000
	5日	— ₩785,000
	서울-사이판(3박, 4박)-서울	
하와이	5日	— ₩790,000(일급) — ₩890,000(특급)
	서울-하와이(3박)-키내(1박)-서울	
호주	5日	— ₩1,109,000
	6日	— ₩1,149,000
	서울-키내(1박)-골드코스트(1박, 2박)-시드니(2박)-서울	

여행조건 10人 이상 출발(허니문은 1쌍이라도 매일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허니문은 특급호텔),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특전 2개월 전 예약시 5% 할인, T-Shirt, 모자 증정, 숙하 화인, 과일바구니 제공, 해산물 부페 제공

불교 성지 순례 전문 — 21세기를 지향하는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817호 ☎ 732-3200 (代)

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15〉

달라지는 세상

두 사람은 객주 안의 여기저기에 쌓여 있는 위탁판매의 물화나 아무렇게나 내동댕이쳐진 것 같은 노적(露積)의 곡식 섬들을 보고 새삼 어리둥절하였다.

그뿐 아니었다. 정작 객주 안의 넓은 곳에는 내거간 외거간과 매주(賣主)들이 서로 눈치를 재는 긴장에 휩싸여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뜻이 웅성거리는 그 활발한 분위기는 그들로서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인담에게는 그들이 제물포로 오기 전의 첫걸음에서 서로 어울리지도 않는 남녀가 만나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떠나자거니 안된다거니 하는 광경을 목격한 것도 이런 곳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바야흐로 임진왜란 이후 어느 정도 안정되었던 세상이 와해되어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새로운 새대에 대한 어떤 모색이기도 하였다.

있는 그대로 살 수 없었다. 무엇인가 새로 있어야 할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있는 세상이란 언제나 헐벗고 굶주리는 가혹한 빈궁의 세상이었다. 죽은 자식의 몫까지 나라에 바치는 세(稅)로 수탈당해야 했던 세상이었다. 그것이 나라였고 그것이 세상이었다.

더우기 이 시대는 나라의 정치도 오랜 당쟁의 분열로 서로 입는 옷이 달라질 만큼 첨예한 복합대립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래서 한양 반가(班家)에는 사방이 적(敵)이었다. 노론과 소론이 갈라졌다.

노론의 우두머리 송시열(宋時烈)이 한 그릇의 사약으로 죽지 않아서 두번째 사약을 먹고나서야 쓰러졌다. 장희빈의 세도는 임금을 능가하였다. 그러다가 그녀도 끝내 무대에서 철저히 사라져야 하는 것이었다.

노론인가 했더니 소론의 시대였고 소론인가 하면 다시 노론이기도 하였다.

인담과 우녀가 걸어온 기호지방의 서쪽 들판에도 초적의 무리가 고개마다 비록 부담마가 아니더라도 소금 한 말 정오까지 터는 형편이었다. 드넓은 들판이라 할지언정 그 어디에도 때가 되어 저녁연기가 나는 집이 드물 지경이었다.

이와함께 아무리 구석진 바다 가까운 한촌이라 한들 그런 곳을 떠도는 나그네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양반의 평시조(平時調)에 대해서 넉살좋은 사설시조가 생겨서 중서인(中庶人)들의 대담한 입담이 마음껏 놀아나기도 하는 것이었다.

어찌 그리 집을 뛰쳐나와 떠돌지 않으면 안되는 묵객이나 풍월을 농락하는 사람들이 봄 개울에 송사리처럼 떼지어 다니는 일이 흔하게 되었는가. 대처인 제물포에는 더욱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림으로써 실속이 있는 사람과 달리 다 허기(虛氣)를 면하지 못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었다.

이런 곳에 막연히 당도한 인담들의 마음은 무욕도 수행의 그것을 먹은 것 다 게워놓은 것처럼 몽땅 뒤집어 놓을 정도였다.

수행이 본래의 성품에 다가가는 추상이라면 그 추상의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세속 현실은 당장 먹느냐 먹히느냐의 생존이 달려있는 곳이었다. 거기에는 본래 성품 따위가 무슨 낮도깨비의 그림자냐 하는 엄혹한 현실만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상업의 이득에만 눈이 먼 곳에도 어김없이 홍역이나 다른 열병이 번져서 죽어나가는 송장 또한 줄을 이어갔다. 상여도 없이 메고가는 얇은 송판 목관을 두번이나 만났다. 그런 세속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두 사람은 돌아갈 힘조차 다 빠져 나간 상태였다.

그 어디에도 때가 되어 저녁연기가 나는 집이 드물었다.

홍역이나 다른 열병이 번져서 죽어나가는 송장 또한 줄을 이었다.

서기가 대기시켜 놓은 방은 정갈한 마루방이었다. 웬만한 차림으로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다.

저 안에서 "안으로 불러 들일까요?"라는 서기의 공손한 말이 들렸다. 그러자 주인의 근엄한 소리가 있었다. "아니네. 내가 나가보겠네 … 이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말게나. 해주(海州) 화주(貨主) 한 녀석이 앉았다 간 자취가 있었다네"

"그 자가 무엇을 훔쳐갔습니까?"

"뭐 작은 것이야. 청나라 옥반(玉盤) 한 벌"

"아뿔싸"

"괜찮다네. 그까짓 것이야 어쩌겠는가. 앞으로 조심하게나"

"네, 네"

그들이 대기실로 나왔다. 주인은 어느 사대부의 안용(顔容)이 그러겠느냐는듯이 실로 부귀를 타고난 푸짐한 얼굴이었다. 다만 말소리가 높은 음정으로 내시(內侍)를 닮아있었다.

"어떤 일을?"

"네 … " 하고 인담이 숨을 내쉬어서 마음을 다잡았다.

"예성강 전포에서 이곳 제물포와 저 아래 군창포(群山)를 왕래하는 배의 선장이 여기 와서 갚으라 하는 빚이 있어서 왔습니다"

"보아하니 야산의 화상(和尙)이신데 … 전포나루 선장이라면 그 수염장이 배만득이지 아마"

"네 배선장입니다"

"그렇지, 그 사람이 한 말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소승이 그 선장에게 돈 2백량을 1년 안에 갚기로 하였는데 요즘이 1년을 다 보낸 때입니다"

인담으로서는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뱃장이 생겨서 그 사연을 말하였다.

주인은 우녀 쪽을 잠깐 살펴보았다. 여승이었다.

"두 사람은 한 짝인가본데?"

"….."

인담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설마하니 무슨 묘책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우녀의 신령스러움에 그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여기까지 왔을 뿐이다. 그들이 오는 동안 두 사람의 목숨이 부지한 것만 해도 다행인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자 아무런 준비 없는 흔백이 저승의 삼도천(三途川)을 공짜로 건너가는 것처럼 어떤 수작도 통하지 않는 제물포 객주에 냉큼 당도한 것이었다. 결국 두 사람의 행보는 무작정으로 끝난 셈이었다. 이제 우녀가 나섰다.

"굳이 짜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함께 공부를 하다가 삼천대천세계의 이르는 곳마다 꽃 한 송이를 피우려는 뜻입니다"

"허허 마음이 큰 도인들이군 … 그래 2백냥은 갚고 떠나겠다는 것인가?"

"그 돈이 없습니다"

"없다?"

우녀는 그녀의 두 손바닥을 쫙 펴보였다.

"없군. 그럼 아리따운 도인의 몸으로 때우겠다는 것인가?"

"몸보다 마음이 낫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몸이야 썩은 나무토막이고 이끼낀 바위덩어리일 뿐이지요"

"마음이라? 어디 그 마음 한번 내보이구려"

그때 우녀가 주인 앞에 오체투지(五體投地)의 절을 하였다.

"이제야 참된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보여달라는 사람이 제 스승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 잘난 주인의 마음에 물무니 같은 것이 이는 것이었다.

"아이구 내가 돈 2백냥을 받아 놓으려다가 내 마음마저 내주게 될 지경이 되었네 그려"

그때 우녀가 한 마디 받았다.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그러나 얼음과 물이 서로 다치지 않습니다. … 바로 이 뜻을 스승으로부터 오늘 얻었습니다"

"나에게서?"

주인의 눈이 커졌다. 뜻밖의 말에 놀란 것이 틀림없다.

"말 한 마디가 천냥(千兩)이니 2백냥을 감하고 8백냥을 내주게"

라고 서기한테 딱 부러지게 말하는 주인 앞에서 인담이 놀랐다.

그러나 우녀는 정중히 합장으로 예를 갖춘 뒤 "다시 찾아올 날이 있겠습니다"



그림 · 최규일

주인의 눈이 커졌다. 뜻밖의 말에 놀란 것이 틀림없다. "말 한 마디가 천냥이니 2백냥을 감하고 8백냥을 내주게"

라고 말하였다.

"오늘 참 좋은 날이네 그려"

주인이 껄껄껄 웃어댔다.

두 사람은 서기가 손짓하는대로 바깥채에 나왔다. 장부(帳簿) 방에서 8백냥의 전대(錢帶)를 인담의 바랑 속에 넣어주는 것이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서기가 날렵하게 경어를 썼다.

두 사람은 객주의 바깥 저지에 나와 있었다. 누가 밀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의 꿈 속에서 걸어나온 것 같기도 하였다. 객주인을 스승으로 삼은 우녀가 밖에 나와서는 다시 그 이전의 우녀로 돌아갔다.

"이제 어찌할까요?"

라고 그녀가 답답하게 물었다.

"예성강 전포나루에나 다녀오면 어떻겠오?"

"거기까지 갈 것 없습니다"

라고 우녀가 말하는데 저쪽에서 바로 전포나루 선장이 사공 한 사람과 오고 있었다. 우연일지라도 실로 어찌 못할 우연이었다.

"아니 이게 누구시오?"

하고 선장 배영감이 인담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옆에 있는 우녀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도 사람이 많이 죽어서 몇천이나 죽었는지 셈을 할 수 없는 이런 세월에 살아계셨으니 그것은 부처님 가피(加被)이겠오"라는 덕담을 하는 것이었다.

그때 우녀가 나섰다.

"저를 사들였던 분이시군요. 이제 막 빚 2백냥을 인담스님이 갚고 나오는 길입니다. 이제 저는 2백냥짜리 몸에서 풀려나 자재(自在)한 몸입니다"

"허어!"

배선장은 혀를 내보이며 감탄하였다.

"그렇게 되었는가! 실은 나도 그 2백냥을 제물포 객주에게서 받아가지 않았다네"

라고 우녀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객주인이 우리에게 8백냥을 준 까닭이 궁금합니다"라고 인담이 나섰다.

"8백냥을 주었는가?" 하고 다시 한번 배선장이 감탄하였다.

"… 과연 객주인 임술(任戌)영감은 청나라 연경(燕京)과 한양의 물가를 좌우하는 큰 인물이로고 … 자 … 어디 가서 국밥이나 먹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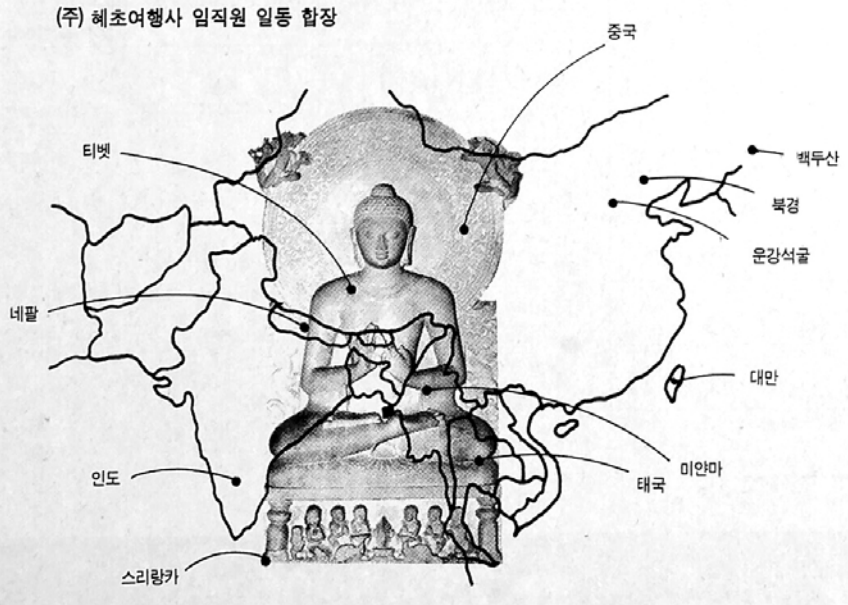
그들 네 사람은 제물포 가가(假家)가 즐비한 저자로 들어섰다. 지금 8도강산의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는 판인데 그곳만은 먹음직한 음식의 냄새로 목구멍에 단 침을 채우게 하고 있었다.

그 삐걱거리는 장터 가가의 밥집에서 선장 배만득이 타던 배가 밤바다에서 수적(水賊)을 만나 배를 통채 빼앗긴 사실

불교성지순례

귀의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여러 불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을해년 한해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 혜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합장



인도 · 스리랑카 15일
· 출발 : 3월 7일 · 동참금 : 215만원
· 일정 : 서울－델리－럭나우－발람푸르－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부다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오랑가바드(엘로라 · 아잔타)－봄베이－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루와－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싱가폴－서울

인도 · 네팔 · 태국 11일
· 출발 : 3월 2일 · 동참금 : 165만원
· 일정 :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카필라바스투－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닛 · 스와이얌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스리랑카 6일
· 출발 : 3월 10일, 24일 · 동참금 : 108만원
· 일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와－시기리야－하바라나－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인도네시아 5일
· 출발 : 3월 19일 · 동참금 : 85만원
· 일정 : 서울－덴파사－즉자카르타－자카르타－서울

대만 5일
· 출발 : 3월 17일 · 동참금 : 65만원
· 일정 : 서울－타이페이－고웅－화련－타이페이－서울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수준) 2인 1실 수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 :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 544-1533 (代)

■구연동화 ■꽃꽂이 ■메이크업 ■다도 ■불화 ■국악 ■민화 ■수지침

교양강좌 여성강사들 생활포교 "열심"

취미교실통해 불심 북돋으며 자기정진

보이지않는 곳에서 불교포교에 그 일익을 담당해내고 있는 맹렬여성불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각종 교양문화강좌에서 불자들을 포교의 실타래로 엮어내는 중책을 소리없이 수행하고 있는 여성강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여성강사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저마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면서 단순히 취미생활을 위한 강좌가 아닌 불자들의 신심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불교적 심성계발의 생생한 현장



◇ 불교문화센터의 구연동화 교실은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시간이다.

포교를 이끌어내고 있다.

"자! 부처님 말씀처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겠죠"욕심쟁이 너구리 이야기를 마치며 어린불자들에게 담부의 한마디를 잊지않는 박경주씨(법명 길상심·34)는 불교계에 몇 안되는 구연동화가다. 3년째 불교문화센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구연동화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는 박씨는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과정과 동방불교대 유아교육과에서 구연동화 실기를 지도하고 있다.

또한 불교방송 '뜸비니동산'에서 매주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유아, 어린이시절의 인지교육이 평생의 80%를 좌우하는 만큼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불교포교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박씨는 현재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전문 포교사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있기도 하다.

꽃으로 부처님을 봉양하며 꽃꽂이로써 포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김문자씨(정진행·52).

현재 조계사 신도회 사무총장의 일을 맡고있는 김씨는 3년전부터 조계사 문화교실 꽃꽂이 강사로 활동해 왔다. 김씨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꽃으로 장엄해 부처님 오신 큰 뜻을 기리기도 하고, 조계사 각종 행사의 헌화에 필요한 꽃꽂이를 도맡아 해 왔다.

메이크업이라는 다소 불교적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은 분야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숙씨(관음행·38)도 불교포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불자의 한 사람이다. 지난 92년부터 3년간 부처님오신날 가장행렬의 총분장 책임을 맡아 2천 5백여년전의 부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연출하는 등 색다른 분야에서 남다른 능력과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서강대 언론대학원 방송아카데미 분장강사, 케이블TV 켓치원의 분장과 의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목동청소년회관과 조계사 문화교실에서 메이크업 강의를 하고있다.

가예원 중앙회 회장이면서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이자 다도대학원 교수로 또 여기에 조계사 문화교실등 각종 교양강좌의 다도강사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설옥자씨(대원화·61)도 다도를 통해 불자들에게 신행생활의 생기를 불어 넣고 있는 불자다.

이밖에도 단청장 준 무형문화재 박정자씨가 불교문화센터에서 불화그리기를 지도하고 있으며 국악인 이임례씨(불교문화센터), 민화가 이영자씨(불교문화센터), 수지침의 김은자씨(조계사)등 많은 여성불자들이 곳곳에서 활동중이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의 장점을 살려 전문인으로서 불교포교사로서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 맹렬여성불자들.

생활불교를 앞당기는 포교와 신행의 길잡이로서 더욱 깊이있고 폭넓은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삼전종합복지관, 어린이 놀이치료교실 개설

중앙승가대학이 위탁운영하는 삼전종합복지관(관장 보각)은 2월 6일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치료교실을 개설했다.

놀이치료는 삼전복지관의 전문아동상담원과 부모와의 초기면접을 거친후 상담시간을 정해 실시된다.

놀이치료는 3세에서 10세의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있거나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관계를 오래지속 시키지 못하는등 자폐성향이 있는 어린이, 발달장애 어린이등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한 희생자로서 좌절과 불안,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개설됐으며 6일부터 계속 접수를 받고있다.

(02)421-6077~8

이런후 건강칼럼 <14>

술

알콜중독

절제심 잃어 만병근원 … 사회낙오 초래

"술요? 보기도 싫어요. 나가면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겁니다"

퇴원을 앞둔 알코올 중독 환자가 치료자와 다른 환자들에게 들으란듯이 한 말이다. 흔히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더러는 진심으로 이런 맹세를 할 때가 없지 않다. 그러나 몇달을 못넘기고 범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보면 술을 끊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란 증거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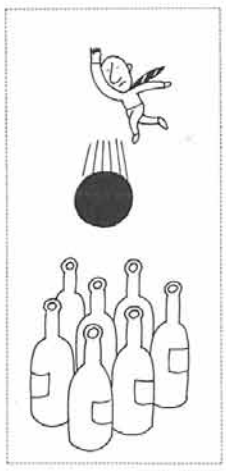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술은 긍정적인 쪽보단 부정적인 쪽을 더 강조하여 가깝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술은 몸을 이롭게 하는 일이 심히 적고 손해보는 일이 심히 많다. 그러므로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대지도론)고 가르치고 있다. 지금와서 현대의학적인 관점으로 볼때도 이런 가르침은 한치의 틀림이 없다 하겠다.

대지도론에 적힌 알코올의 폐해를 살펴보자.

첫째, 재물을 잃는다. 술을 마시면 마음의 절제가 없어지니 재물인들 남아나겠는가. 물자를 얻을 수 있는 자연적인 기회도 잃게 됨은 물론 이미 얻어놓은 재물도 지탱하지 못한다. 여러가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하니 사회적인 낙오를 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신체적인 힘이 줄고 모습이나 기색이 나빠지고 슬픔과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부끄러움도 잊고 지혜도 잃게 된다. 셋째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사문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웃을 구별하지 못하며 부처님을 공경할 줄 모르고 선인을 멀리 하며 악인을 가까이 한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않겠는가. 음주로 불선행을 행하므로서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미움받는다. 넷째로는 색정을 방종하게 하고 열반의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지며 죽어서도 악생에 빠진다. 결국 요행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어리석거나 미치광이가 된다고 적고 있다.

논어에 공자가 술을 사양하지 않고 마시지만 난의 정도에 미치지 않게 하였다는 말도 전한다. 말하자면 술을 정도껏 마셔야 한다는 논리이고, 또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지표에도 보면 술을 올바르게 마셔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모두가 적당히 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 적당히 라는 것이 술꾼들에게는 가늠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술이 사람을 마시는 판에 사람의 이성이 어찌 술을 제어할 수가 있겠는가. 때문에 술로 인한 폐해를 먼저 생각하고 멀리하는 것이 건강하다.



〈이대 신경정신과 교수〉

만화

法句經 법구경

꽃의 장
고운 꽃을
꾸미듯이

이 향 원



아직도! 인도 성지 순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감솔한 한해 동안 성원하여 주신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년도 성실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수미산 가족 일동—

여행번호	방문지	여 행 일 정	요 금	출 발 일			
				'95.1	2월	3월	4월
INA-01	인도 10일	불교 4대 성지	150만원				
INA-02	인도 30일	인도 전역 자유여행자를 위한 왕복 항공권					
INA-03	인도 12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바람푸르)-럭나우-델리-방콕	180만원 (155만)			3월 7일	
INA-04	인도 15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나지기르-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산치-아잔타-엘로라-봄베이	210만원 (180만)				
INA-05	인도 17일	방콕-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럭나우-아그라-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봄베이-방콕	230만원 (200만)				
INA-06	인도 22일	방콕-카투만두-룸비니-사나울리-기원정사-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상카시아-아그라-델리-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봄베이-몬줌보-아루라다푸라-폴로나누와-시기리아-캔디-방콕-아유타야-홍콩-마카오	280만원 (240만)				

INDIA 인도관광성 | Travelite (India) 인도전문여행사

그럼, 지금 수미산 여행사로 문의하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친절한 안내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모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도라하더라도
저희 수미산과 함께라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 출발예정일 *

대 만	(4박 5일)	2월 24일	(불광사·일월담·화련·타이페이)	65만원
싱가폴·발리	(5박 6일)	2월 18일	(싱가폴·보루부둘·발리)	90만원
스리랑카	(8박 9일)	2월 14일	(스리랑카 페라헤라축제)	140만원

(주) 수미산 여행사
SUMER TOUR CO., LTD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2층
전화 02-720-3241~7 / 팩스 02-720-3248
국외여행업 등록 제358호

여행번호	방문지	여행일정	요금	2월	3월	4월
SMR-01	미얀마, 태국 8일	양곤-만달레이-파간-페구-방콕-아유타야(파타야)	129 만원	10 21	11 22	5 18
SMR-02	일본 5일	오사까-나라-교또	95 만원	17	17	20
SMR-03	일본 6일	동경-나라-교또-오사카	135 만원	15	8	22
SMR-04	대만 5일	타이페이-일월담-고웅-불광사	55 만원	24	12	20
SMR-05	대만 6일	타이페이-일월담-고웅(불광사)-화련	65 만원	24	23	8
SMR-06	태국 6일	방콕-파타야-아유타야	60 만원	8	25	21
SMR-07	동남아 3개국 8일	홍콩-방콕(아유타야)-싱가폴(바탐)	90 만원	21	17	10
SMR-08	동남아 4개국 10일	방콕-아유타야-보루부둘-홍콩-타이페이(불광사)	155 만원	27	19	14
SMR-09	(8박 9일) 스리랑카	홍콩-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불족산)〈페라헤라 축제〉	140 만원	⑭	9	15
SMR-10	(7박 8일) 태국 스리랑카	방콕-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캔디	108 만원	10,21	20	21

* 상기 일정중 단체 출발시에는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코스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고려후기 일연(一然)스님께서 편찬한 역사서이다. 총 5권 2책으로 되어 있는데 왕력(王歷) 기이(紀異) 탑상(塔像) 의해(義解) 신주(神呪)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등 9편 14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국·가야·후고구려·후백제의 연표를 붙인 왕력편에는 중국의 한·위·진·송·재·양·진·수·당(漢·魏·晋·宋·齊·梁·陳·隋·唐) 등 중국의 연표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기이편에서는 고조선으로부터 후삼국에 이르기까지 기이(紀異)한 역사를 서술하고 흥법편은 3국불교의 수용과 융성, 탑상편에서는 탑과 불상에 관한 사실, 의해편에서는 신라고승들의 전기, 신주편에서는 신이한 스님들의 기적, 감통편에서는 영이감응(靈異感應)의 설화, 피은편에서는 초탈고일(超脫高逸)한 인물들의 행적, 효선편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불교도들의 선행 미담을 적어 3국불교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1926년 경도제국대학에서 순암본을 영인하고 32년에는 고전간행회에서, 64년에는 학술원에서, 73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영인하여 썼는데 그후 최남선 이종렬 이병도 이재호 권상로 박성봉 이동환 이민수 임영수 김사엽 이홍직 등 여러 학자들이 번역하고 주로 매어 누구나 볼 수 있게 널리 보급되었다.

삼국유사의 가치는 다른 책에 없는 역사와 불교 설화등에 관한 서적과 문집류 고기사지(寺誌) 비알(非謁) 안첩(按牒) 등이 기록되어 역사의 자료로서 보고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단군의 역사와 화랑 이두문자 향가 불상 탑등은 한국 고대의 문학 미술 건축 국민운동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한 정 섭
〈한국불교교화원장〉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고 황의돈박사의 강의를 들고 대학 1학년때 읽게 되었지만 실제 공부하기는 대학원 1학년 때 권상로박사님께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부터이다.

나는 이책에 의하여 불교영험설화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불교설화대사전(上·下)을 내게 되었다.

요즘 권상로박사님 번역본에 주해(註解)를 내면서 그 가치를 새삼스럽게 인식하고 있으며 불교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인이면 누구나 꼭 한번씩은 읽고 생각해 보아야 할 역사서라 생각한다.

역사·종교·언어·민속등 총망라
고대불교사상 이해에 큰 도움

동국여지승람이나 동사강목 같은 데서는 '허황한 이야기책'이라 평가하고 있지만 고대한국의 역사·지리·문학·종교·언어·민속·사상·미술·고고학을 원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고귀한 자료이므로 일역 영역 본까지 나와있는 실정이다.

1281년 충렬왕 7년에 편찬된 이 책은 1310년 제자 무극(無極)에 의하여 간행되고 그뒤 간행된 석남본(石南本) 송은본(松隱本)이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1512년 경주부윤 이계복이 복각(覆刻)한 것을 순암 안정복이 소장하고 있다가 1916년 일본 이마니시(今西龍)에게 소장되어 마침내 천리대학 도서관에 비치되게 되었다.

출판가 화제인물 만나봅시다 — 귀화영국인 서강대 안선재교수

'소설 화엄경' 英譯 한창

한국불교정서 서양 전파위해
3년동안 작업 "가을 출간예정"

고은씨의 소설〈화엄경〉이 영어로 번역된다.

91년 7월 출간, 장기간 베스트셀러로 꼽혀 온 〈화엄경〉을 서강대 영문과 안선재교수가 영역하고 있다. 안교수는 올 여름까지 번역을 마치고 가을에 미국에서 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교수는 가톨릭 수사로 지난해 한국에 귀화한 영국인. 그는 〈화엄경〉 번역에 몰두해 한국 이름도 영국이름 안토니 티크와 발음이 비슷한 〈화엄경〉의 주인공 선재(善財)로 정했다. 80년부터 서강대 강단에 서온 안교수는 "화엄경은 한국 불교 소설의 최고봉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의 불교정서를 서양에 전파하고 싶어 번역에 착수 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서울대 영문과 김영무 교수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가능한 원전에 충실해 고은씨의 소설적 감각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게 안교수의 설명이다. 또 안교수는 "불교 고유의 용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다"며 불교 용어는 최대한의 의미 전달을 위해 산스크리트 표기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괄호속에 해설을 붙혀가며 번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이 가톨릭의 수사이지만 한국과 한국의 정서가 좋아 귀화까지 했다는 안교수는 "불교를 제외한 한국의 정서는 상상도 못한다"는 소신이 화엄경의 번역에 더 큰 열정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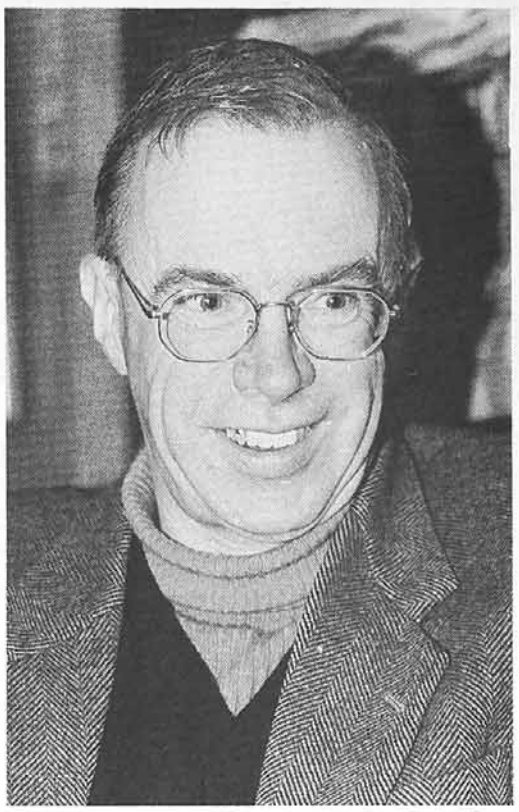
그는 〈화엄경〉의 주인공 선재의 구도의지를 배우는 삶을 원하고 있다. 교수로서의 삶은 끝없는 탐구의 자세로 이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신선하게 유지시켜 준 것이 선재의 이야기였다는 것.

원전을 한페이지씩 읽으며 차근차근 번역하고 더러 불교관련 공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안교수의 번역 작업은 벌써 3년을 넘기고 있다. "서두르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작품보다 정성을 기울여야 성공적인 번역물이 나올 것이란 생각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였듯이 서양에서도 장기간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소설 〈화엄경〉이 단순한 소설적 재미 이전의 존엄한 신앙성을 갖고 있으므로 번역에도 그만큼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며 한국의 정신을 서양에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그의 번역작업은 이미 많은 결실을 거뒀다.

안교수는 지난해까지 구상씨의 시집 3권, 김광규씨의 시집 3권, 서정주씨의 초기시집 3권을 영국에서, 고은 시선집 〈나의 파도소리〉를 미국 코넬대학 〈몽양시 시리즈〉로 각각 펴냈다. 또 이문열씨의 소설 〈시인〉과 고은씨의 선시집 〈뒤냐〉 천상병씨의 시집등도 번역 중인데 금년내로 영국과 미국에서 출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 고은씨의 소설〈화엄경〉을 영어로 번역, 올 가을에 미국에서 출간할 예정이라는 안선재 교수.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역자	출 판 사
1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2	자네, 도가 뭔지 아나	효림	대원정사
3	참된 사람들의 이야기	윤승운	불지사
4	전통사찰-서울	최원식 외	사찰문화연구원
5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교보문고
6	연꽃 만화	장지연	부다가야
7	알기쉬운 불교	권성부	불교방송
8	오직 그대 자신을 …	나라다	경서원
9	미라래빠의 십만송	이정섭 역	시공사
10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구입문의:(02)737-0695

출판단신

동경 국제 도서 박람회에 '겨레의 땅…' 영어판출품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일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경 국제도서박람회'에 불서전문출판사에서는 불지사(대표 김형균)가 참가,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을 소개한 〈겨레의 땅 부처님 땅〉의 영어판(NAMSAN)과 일어판 〈古都慶州神祕中の南山〉을 출품했다.

도쿄 국제도서박람회는 세계 4대 도서축제의 하나로 전세계 2천여 출판사에서 도서를 출품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백여 출판사가 참가 또는 참관했다.

새로 나온 책

▲일곱가지의 이내(김달진 지음)=경전에 산재해 있는 흥미롭고 교훈적인 설화를 추려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한 설화집. 30여년전 발행된 같은 제목의 책을 현대어로 윤문해 새로 펴냈다. '이발사 우팔리와 여섯 왕자' '라훌라의 인욕과 해탈' '부처님 암살계획의 실패' 등 42개의 얘기를 실었다. 〈우리출판사, 5천6백원〉

▲리틀 부다(고든 맥길 지음)=달라이라마의 환생과 고타마 싯타르타의 일생 등 서로 다른 출거리를 한데 엮은 소설. 시애틀에 사는 소년 제시에게 어느날 부탄에서 온 승려들이 찾아온다. 제시와 그의 아버지는 승려들을 따라 티벳으로 신비한 여행을 떠난다. 불교사상의 이해를 도와주며, 정신세계의 진리와 고귀함을 전해준다. 〈김남택 옮김, 열림원, 5천원〉

▲열번만 생각해봐(자용 엮음)=고려말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리어지고 있는 불교가사를 묶었다. 발원문 회심곡 왕생가 백팔가 등 21편의 불교가사를 우리말로 싣고 지은이 소개와 간단한 용어풀이를 덧붙였다. 〈민족사, 5천원〉

▲우리말 유마경(김성구 엮음)=영남대 의대교수인 권자가 유마경을 쉬운 우리말로 옮겼다. 책 뒤편에는 구마라즙의 한역 유마경을 실었다. 〈이사금, 4천원〉

▲예물하는 마음에 자비를(권영한 지음)=사찰의 유래를 비롯 각종 전각 및 석물 등에 얽힌 불교신앙 및 문화적 의미를 밝혔다. 또 사찰에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예절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3백50여장의 원색사진과 도표 그림을 곁들여 이해를 도왔다. 〈전원문화사, 1만5천원〉

화제의 책

일본문화 뿌리는 '불교와 禪'



〈선과 일본문화〉는 불교 또는 선학으로 이해하는 일본론이다. 역자인 보광스님(몽국대 경각원장)은 "선에 대한 이해없이는 일본문화와 일본인을 알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일본을 알수 없다. 일본문화의 뿌리에 불교가 있으며, 선이 그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책은 본질에 접근하는 일본알기 텍스트이다.

禪과 일본문화

저자는 이 책에서 일본인의 미의식과 생사관 자연관 종교관은 선의 가르침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선과 일본문화' '순선(純禪)의 도를 구하여' 등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광 옮김, 불광출판부, 6천원〉

한국 근·현대고승 족적다뤄



19세기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스님 28명의 인물평전.

〈현대고승인물평전〉에는 한국선의 중흥조로 불리는 경허선사, 세계적인 선승 학명선사, 화엄학의 탄허선사, 민중과 함께 살다간 만해, 용성문중과 덕숭문중의 큰 산맥인 용성스님과 금오스님, 그리고 역대종정을 역임한 7명의 선지식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고승들의 족적이 상·하권에 담겨 있다.

현대고승 인물평전

각 장마다 고승들의 약력과 생애, 당시의 시대배경, 사상 및 불교사에 끼친 영향 등을 밝혔다. 〈불교영상, 각권 5천5백원〉

초기 수행자 깨달음의 노래



2500년전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의 정신적 번뇌와 깨달음의 감동을 노래한 수행시집. 원래의 제목은 '데-라가-나'(남자수행승 시집) '데-리가-다'(여자수행승 시집).

2500년전 비구·비구니의 시

수보리장로로부터 스메다 비구니에 이르기까지 모두 1백50여수의 시를 실었다. "나는 겁나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수행자들은, 공포가 존재하지 않으며 도에 따라 나아간다" 등과 같이 복받치는 감정과 신앙고백, 수행의지가 주조를 이루고 있으며, 고민과 번뇌 그리고 그것이 해결될 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한갑진 옮김, 한진출판사, 6천원〉

불음 가득 · 법향 가득

책방 여시아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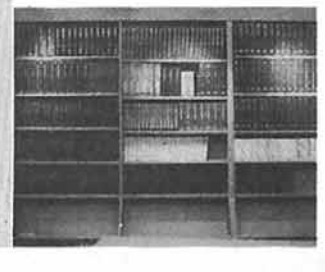


국내 최대의 불교 전문 서적만을 취급하는 서점입니다.
60여 평의 여유로운 공간에
국내외의 불교관련 서적으로만 2만 권 3천 여 종을 갖추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초심자에서 학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 한분한분의 기대에 따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드립니다.
국내외의
서지정보(희귀본, 서적, 논문, 잡지) · 불교학술논문 · 불교문화예술정보 등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항상 불자 여러분의 공부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공간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가 배치, 컴퓨터 검색 체제,
그리고 언제라도 편안히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의 만남과 함께 법향 듬뿍 음미할 수 있는 곳,
책방 여시아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불자들의 자랑입니다.
여시아문은 삼보에 귀의하는 서점입니다.
불법 홍포를 위해 회향하는 서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세계화를 실천하는 서점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 33 · 전화 (대표) 737 - 8881 (서점직통) 737 - 0695 · 팩스 737 - 0696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 - 2번

사찰문화재 도난 "무방비"

최근 4년간 89점…박물관·경보기 태부족
진품 보관 모사품 활용등 보존 대책 강구

송광사 16국사진영 도난사건으로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불교문화재의 대부분이 도난 및 훼손등의 위험으로부터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불교문화재의 도난은 관리소홀이 1차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나 근원적으로는 불교문화재가 전국의 사찰에 분산돼 있고 전문관리자가 없어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91년부터 4년동안 도난된 문화재는 58건 433점으로 이 가운데 불교문화재가 46건 89점에 달했다. 〈도표 참조〉

94년 12월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재 6,643건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2,039건에 이른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147건과 768건으로 각각 52%,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사찰소장 문화재 가운데 도난 등으로부터 특별히 보호가 요청되는 동산문화재는 303건에 달한다.

일부 사찰소장 문화재는 유전시관이나 대여금고, 인근의 국공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에 위탁보관되고 있으나 불상 불화 등은 예배대상이라는 성격 때문에 해당사찰의 건물내에 보관되고 있다.

현지 유물전시관이 건립되어 있는 사찰은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비롯 법주사 표충사 기림사 등 4곳뿐이며, 직지사 송광사 부석사는 건립중이거나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인사 옥천사는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도난당한 송광사 16국사 진영중 제3세 청진국사(왼쪽)와 제5세 자진국사의 진영.

성보문화재의 도난 방지를 위해 현재 강구된 방안은 도난경보기 설치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번 송광사 사건이나 92년 전남구례 천은사 후불탱화(보물 924호) 도난사건에서 보듯 도난방지시설 설치가 최선의 대책은 아니다. 동산문화재는 전국의 164개 사찰에 분산 소유되고 있으나 그나마 도난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갑사 원정사 장곡사 등 13곳에 불과하다.

전문관리인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찰 주지에게 관리를 위임하고 있으나, 말사의 경우 깊은 산중이어서 인적이 드물고 거주스님이 주지를 포함해 많아야 2,3명에 불과해 수행 포교 외에 문화재관리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워 형식적인 관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역의 한 말사주지스님은 "산문은 항상 열려 있어 도난에 대해 무방비상태나 다름없다"며 "한두분의 스님으로서는 관리할 능력이 부족해 귀중한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찰소장 문화재는 관리소홀의 문제 이전에 근본적으로 보호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다. 불교문화재는 대부분 스님이 출타중이거나 심야 또는 신도를 가장해 사찰에 들어와 훔쳐간 것으로 밝혀져 관리의 어려움을 뒷받침해준다.

일부 사찰에서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교구본사에 보관하고 있으나 이것도 극히 일부에 머물고 있다. 불교문화재가 예배물 또는 의식용으로 쓰이므로 모조품으로 대용하려는 것을 꺼려하는 인식 때문이다. 동화사는 조사진영과 탱화등의 진품은 금고에 보관하고 모사품을 전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일 주돈식 문체부장관이 송광사 문화재 도난사건과 관련 "전국 각사찰이 보유문화재를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권유하고, 사찰이 문화재 보호책임을 맡으면 자금과 기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이 현재는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교구본사에 유물전시관 건립시 예산지원 △예배대상 문화재의 복제품 사용 △국공립·대학박물관 위탁보관 △도난방지 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유물전시관 건립지원과 관련해 김진무 문화재관리국장은 "문화재관리 예산과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송광사 성보도난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 성보가 노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진품은 박물관에 보관하고 모사품을 예배용으로 내놓는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 93·94년 비지정성보 도난 현황

명 칭	수 량	소 재 지
운암사 불상(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2점	경북 점촌시 운암사
후불탱화	1점	
능가사 불상(관세음보살상 대세지보살상)	2점	전남 고흥군 능가사
안정사 후불탱화	1점	경북 통영군 안정사
유금사 후불탱화	1점	경북 영덕군 유금사
신중·칠성·산신·독성·지장·현왕탱화	6점	충남 예산군 수덕사
기장탱화, 후불탱화, 괘불	3점	경북 달성군 유가사
포우대사 영정	1점	경남 진양군 청곡사
후불탱화	1점	
선암사 동종(18세기)	1점	전남 승주군 선암사
목조불상	1점	전북 장수군 팔성사
안국사 후불탱화	1점	전북 무주군 안국사
아미타 삼존탱화	1점	경남 양산군 통도사
지장탱화	1점	
대곡사 후불탱화	1점	경북 의성군 대곡사
관음보살상(목불상)	1점	전남 여천군 용문사
월인석보	1점	서울 종로구 세종로 83-1
월인석보 머릿전	1점	
은자능엄경	1점	전남 해남군 대흥사
부모은중경	1점	
금자무변경	1점	
신흥사 후불탱화	1점	경남 울산군 신흥사
운남사 후불탱화	3점	경북 의성군 운남사
지장탱화·신중탱화		
묘각사 후불탱화	1점	경북 영천군 묘각사
지장보살탱화	1점	강원 삼척군 영은사
삼장탱화·후불탱화	2점	전남 강진군 백련사
신중탱화	2점	경북 문경군 김용사
후불탱화·산신탱화	2점	
사천왕탱화	4점	
극락보전 후불탱화	1점	전남 장성군 백양사
목공예품(전패)	2점	
후불탱화·지장탱화	2점	경북 의성군 고운사
계	23건 52점	

※문화재관리국 94. 10. 5 현재

16국사는 승보의 상징

◇제1세 보조국사 지눌(1158~1210)고려중기의 스님으로 정혜결사(定慧結社)운동을 편 이로 고려후기의 선을 크게 부흥시켰다.

◇제2세 진각국사 혜심(1178~1234)수선사(송광사)를 중심으로 지눌의 간화선법(看話禪法)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진작시켰다.

◇제3세 청진국사 몽여(?~1252) 거란과 몽고의 침략으로 기복불교가 성행해 침체일로에 있던 불교선풍 진작에 크게 공헌했으며1234년이후 18년간 활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4세 진명국사 혼원(1101~1271)지혜가 총명하여 사굴산 선문의 으뜸이 되고, 1259년(고종 46)에는 왕사가 되어 12년간 대중을 교화했다.

◇제5세 자진국사 천영(1215~1286)15세에 출가하여 조계산 진각국사 혜심에게 득도하고 운집하는 학승들에게 종풍을 크게 펼쳤다.

◇제6세 원감국사 충지(1226~1292)1224년(고종 31)19세이 자원급제하여 벼슬이 한림에 이르렀으나 원오국사를 만나 득도하고 구족계를 받았다. 그뒤 강사(講師)로 다니다가 깁해 갑로사에 머물면서 이름을 떨쳤다.

◇제7세 자정국사(?~?)
송광사 사원비와 「해동불조원류」에는 조계6세라 했으나, 제6세 원감국사의 비가 송광사에 현존하고 있어 7세로 추정. 그 밖의 자세한 행적은 없다.

◇제8세 자각국사 도영(?~?)각진국사 각엄의 스승으로 자세한 행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제9세 감당국사
기록이 없다.

◇제10세 혜감국사 만항(1249~1319)구산(九山)의 선선(禪選)에서 장원으로 뽑힌 다음, 금강산·지리산등에서 수행하여 명망이 더욱 높아졌고, 송광사 주지로 주석한 시기는 확실치 않다.

◇제11세 자원국사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제12세 혜각국사(?~?)
동국여지승람에 고려 안진이 글을 지어 세운 그의 비가 경북 선산군 미륵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제13세 각진국사 복구(1270~1355)1290년(충렬왕16) 승과의 선선에 급제했으나 명리를 버리고 여행을 나섰다가 백암사에서 10여년의 참구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문하에 선원등 1천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

◇제14세 정혜국사(?~?)
백암사 사적의 전장경방에 주법 조계14대 화상 복암 정해라는 기록과 대지국사 고저 찬영의 비에 '정혜국사에 나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제15세 홍진국사(?~?)
송광사의 사원비와「불조원류」에 이름이 나타나나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제16세 고봉국사 법장(1350~1428)머리카락이 두치나 자랐고, 풀피리를 잘 불었으며, 표주박 한개를 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다 1395년(조선 태조4) 에 자던중 꿈을 꾸고 송광사의 중창을 결심, 전당 서너개를 지었다. 그후에도 계속 가람의 증축 불사를 돕다가 법랍 58년으로 1428년에 입적했다.

이상의 16영정 중 제1세 보조국사 지눌, 제2세 진각국사 혜심, 제14세 정혜국사의 영정을 제외한 13점이 도난을 당했다.

송광사가 배출한 걸출한 고려후기 고승들

송광사를 중심으로 고려후기에 활약했던 보조국사 진각국사 청진국사 등 16명의 고승진영으로 지난 90년 9월 보물 제1043호로 지정돼 송광사 국사전(국보 제56호)에 봉안돼 왔다.

보조국사 진영을 중심으로 왼쪽엔 짝수세(世) 7명의 국사가, 오른쪽엔 홀수세 국사 8명이 중앙을 향하는 모습으로 배열해 있었다.

16점의 작품은 규격이나 제작기법이 거의 같아서 동일 시기에 일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보조국사 진영하단에 상세히 기록된 화기에 따르면 건융 45년(1780) 4월에 중성(重成)되어 영당에 안치되었으며, 작자는 쾌윤(快玧) 복찬(福粲)으로 되어 있다. 색조는 대부분 암갈색의 어두운 배경에 녹색을 주색조로 사용하고 있다. 동국대 박물관장 흥윤식교수는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국사들의 영정형식은 전신의자상 또는 의자 위의 가부좌상으로 되어 있으며, 불자를 들고 있거나 선정인 또는 설법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보조국사는 주장자를 짚었다.

'16국사 진영'은 어떤 문화재인가

16점 제작기법 동일…작가는 쾌윤·복찬 추정
송광사 국사전에 봉안·90년 보물로 지정

문화계소식

1천년전 불화 일본서 발견

임란때 약탈…진품일땐 국내 最古


◇ 우리나라 불화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신습득수묵불화'. 일본의 탄생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신라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묵불화가 일본 사찰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외국어대 김문길교수(일본어과)는 최근 "일본 오카야마현 탄생사(誕生寺)박물관에 나말여초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수묵불화가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사진을 공개했다.

김교수는 "이 불화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된 중국 당나라 때의 전설적인 승려 한산과 습득을 그린 가로 90Cm 세로 1백 40Cm 크기"라며 "일본의 문화재전문가인 오카야마대학 와기다 히데다로 교수가 지난 56년 작성한 그림 안내문에 '임란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조선에서 가져온 작품으로, 종이질로 보건대 1천년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 작품이 진품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불화가 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최고(最古)의 불화는 고려 고종때 그려진 '오백나한도'로 12세기말 작품이다.

월하스님 친필 병풍등 전시

갤러리 요철요에서는 오는 19일까지 입춘미술특별기획전을 갖는다.

전통문화연구의 집 요철요 전시공간인 갤러리 요철요가 미련한 이번 기획전에는 조계종정 월하스님의 친필병풍을 비롯, 문인화가 정성태, 중국의 왕명명, 장소신, 한국의 서양화가 박서보, 윤병석, 심속자, 김수억, 조각가 전상범, 도예가 홍재표씨의 전시 도자기가 전시된다.

(0342-43-1996)

만해스님 일대기 연극공연

만해 한용운(1879~1944)스님의 일대기가 연극으로 공연된다.

3월8일부터 10일까지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공연될 이 연극은 성북구가 관북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마련한다. 무용과 노래를 곁들인 축제극으로 꾸며질 만해스님의 일대기는 성북구 관내의 공연단체인 신명예술단(단장 박인배)이 맡는다.

연극은 8일 1회 9일과 10일 각각 2회 총5회 무료공연된다.

'16나한도' 등 전통불화 발표

김의식씨의 첫번째 불교미술 전시회가 3월1일부터 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를 통해 김씨는 「16나한도」(높이 220Cm 길이 10m) 병풍등 42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통불화를 사찰에서 쓰는 예배용이라고만 생각하는 기존의 인식을 감상용 작품으로 바꾸고 싶어 첫 전시회를 마련했다는 김씨는 지난 90년 대한민국 불교미술전람회에서 대상을, 93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극단 동쪽나라 연극회원모집

극단 동쪽나라(대표 김형균)에서는 제5기 연극학교 회원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연극학교는 국민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저학년반, 고학년반으로 나눠 각각 25명씩 2개반으로 운영되고, 풀이과정, 갖추기과정, 놀이과정, 보이기 과정의 내용으로 1년간 주1회 수업을 한다.

(02-263-8438)

웬 소금이 그렇게 비싸?

좀 특별난 소금—인산죽염 한통(250g)값은 45,000원. 보통 소금 값의 무려 1,000배 가량으로, 세상에 이보다 비싼 소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싼 소금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제값을 하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인산죽염은 염분이 몸에 해롭다는 고정관념을 180도 바꾼 전혀 새로운 개념의 건강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소금 속의 독을 제거하고 미네랄을 응축시킨 무공해 소금 — 인산죽염. 이 비싼 소금을 드셔야 하는 자세한 이유를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736-3171)

인산죽염은 仁山 김일훈(1909~1992) 선생의 가르침 그대로 만듭니다.

150년을 잇는 「신토불이 건강」의 맥
仁山家
고객상담 736-3171



고급 관리자 채용

정년퇴임하신 분, 불자되신 분을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모집인원 : 남 10명, 여 5명
•학 력 : 초대졸 이상(불자라면 더욱 좋습니다)
•연 령 : 38세 이상

'건강'은 이제 인류 최대의 관심사이자 국가전략 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획기적인 사업을 함께 전개해나갈 뜻있는 몇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한 가족처럼 따뜻한 손을 잡고 함께 일하실 분—꿈과 보람이 있고 생활이 보장되는 우리들의 광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전화 : (0343) 49-9949, 41-5071

방생, 환경살리기 처방된다

시민환경硏 문태영박사 자연보전 모색방법 제시

생명존중사상 보급·생태회복 이중효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전국에서 실시될 각종방생법회가 환경보호차원에서 개최돼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그간 불교계에서 행해 온 방생법회는 상업성과 기복성을 부추기고 생태계 파괴문제까지 야기함으로서 비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90년 이후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방생이 생태계 파괴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인간방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 각 종단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방생'으로 방생의 형태를 유도하고 있다. 조계종은 최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올바른 방생법회를 위한 제언」을 전국 사암에 시달했으며 태고종도 지난해부터 '환경보존실천 수륙영산대법회'를 갖는 등 전에 없는 관심을 표명, 무분별한 방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줬다.



◇방생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복원 생태학적 측면에서 방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내는 문태영 박사〉.

이같은 방생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문태영박사는 다음 달 시민환경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환경·생태 관련 세미나'에 「방생의 종교 및 생태학적 응용」이란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에서 문박사는 "불교계가 선도적으로 올바른 방생에 대한 계몽사업을 펼치고, 한동안 이를 금지해 자체반성을 유도한 후, 방생의 본 뜻에 합치되며 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하지 않는 과학적인 방생방법을 연구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미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복원생태학적인 차원에서 방생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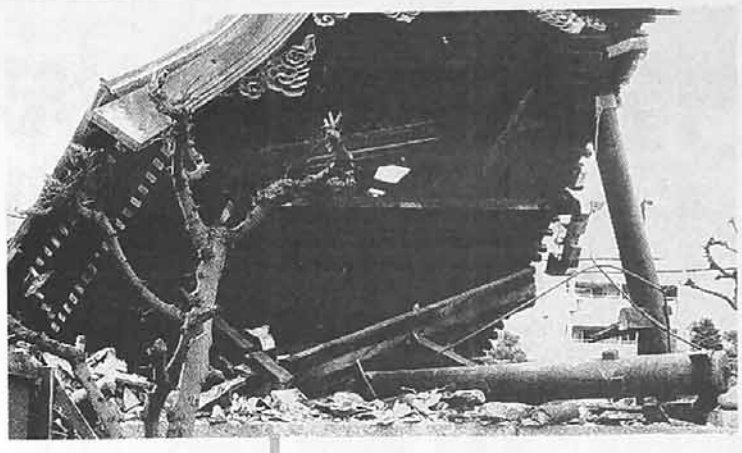
문박사는 또 "꼭 필요한 생물들을 방생한다면 본래의 생명존중사상과 함께 생태복원이라는 이중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생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가 전국적으로 선행되어 복원시킬 대상과 지역에 대한 정보가 시급히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물기록센터나 생물자원보존관 등이 생겨 그 역할을 해주고 방생시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는 등 국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적극적 방생'의 해결책으로는 △기존 생태계를 보호하는 외래종(外來種)의 방생 △생태적 수용능력을 고려한 방생 △남획(濫獲)으로부터의 보호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방생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생 △오염된 지역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방생 등이 제시됐다.

처음으로 '방생'을 환경생태학적으로 조명한 문박사의 이 논문은 불교학계에서 방생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전무한 가운데 전문 생태 과학자에 의해 씌여졌다는 점에서 불교학계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삼국시대부터 전래돼 온 우리나라의 방생(放生)은 용왕신앙과 습합하여 수륙제나 용왕제란 이름으로 불교에서 주로 행해져 왔다. 불교계에서는 주로 대보름, 삼짇날, 초파일, 추석 등 일년에 네차례 방생법회를 열고 있다. 특히 정월 대보름에 열리는 방생은 예로부터 사찰에서 봉행해 온 중요한 행사의 하나로, 방생을 통해 생명존중 사상과 동체대비의 자비정신을 구현, 도덕성을 앙양하고 신앙심을 고취시켜 가정과 사회 생활의 안정을 기원하는 취지를 전해 왔다.

〈김재경 기자〉



◇정토진종 본원사파의 조선사는 사찰 전체가 지진으로 폭삭 주저 앉았다.

日 지진 피해사찰 2백여곳 피해복구 원조모금활동 전개

지난 1월 17일 일본의 간사이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상황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불교사찰의 피해도 당초 예상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중외일보 1월 21일자에 의하면 자체 지진피해조사반을 편성, 사찰피해상황을 파악한 결과 15개 종단에 걸쳐 2백여곳이 넘는 사찰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따라 피해복구원조를 위한 모금활동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피해 정도는 사찰건물에 금이 가거나 천정이 무너진 곳으로부터 완파된 곳, 지진에 따른 화재로 전소된 곳 등 차이가 있지만 정도가 심한 곳이 많다.

이중 법당, 산문, 종루, 요사채등의 피해가 가장 많고 납골불단, 탑의 피해뿐 아니라 신축한 콘크리트 건물의 피해도 있었다.

종단별로 피해상황을 보면 △조동종, 동복사 외 19곳 △고야산진언종, 이성원을 비롯한 15곳 △진언종어실파, 1월 21일 현재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동산사, 법륭사등 5곳의 피해 극심 △진언종순마사파, 대본산순마사 △정토종, 광명사등 17곳 △동사진언종, 서대사 및 실상사 △진언종대각사파, 성복원 등 4곳△본문불입종, 광선사 등 7곳 △임제종묘심사파, 해청사 등 4곳 △임제종남선사파, 광엄사 등 4곳 △임제종동복사파, 무송사 △법화종본문류, 대본산본홍사를 필두로 법화사, 최명사등 △정토종본원사파, 원정사를 포함한 99곳 △진종흥정파, 정복사 등 16곳 △진종대곡파, 명정사 등 19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전국적 차원의 피해복구 및 원조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종단별, 사찰별로 모금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성관음종에서는 5백만엔을 피해지에 보냈고 조동종에서는 1천만엔을 NHK에 기탁하기도 했다. 그리고 기타 종파별로도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원명스님 구소련지역 포교 보도

홍콩 시사주간지

홍콩에서 발행되는 파이스턴 이코노믹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는 1995년 1월 12일자에 서울 안국동에 소재한 연등국제불교회관의 설립자인 원명스님의 국제포교활동을 소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때 반종교선전의 그늘에 있었던 구소련지역을 20여 차례나 여행하면서 이곳 사람들의 정신적 갈망, 특히 불교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야 할 필요를 절감한 원명스님은 남다른 추진력으로 러시아의 툴라, 우크라이나의 폰츠크, 우즈베키스탄의 타시켄트, 키르키지아의 비쉬케크 등 4곳에 불교센터를 설립했다고 한다.

加서광사 주지 서헌스님 취임

한국불교 조계종 몽도사 분원인 카나다 서광사 주지에 서헌스님이 지난해 11월 27일 취임했다.

서헌스님은 1974년 입산, 경기도 화성사에서 사미계, 1977년 송광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한 이래 참선수행에 정진해 왔으며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청년 및 학생법회, 참선법회 활성화와 전통사찰 건립 의지를 밝혔다. 〈미〉

해외토신

방송 안테나

수권자본 천1백만주로 확대
불교TV 제6회 이사회 개최

불교텔리비전(대표이사 태응스님)은 지난 9일 신라호텔 파인룸에서 제6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불교텔리비전의 제1기 결산승인과 제2차 불자주식공모를위한 정관의변경, 일부조직개편, 외부감사선임,주주총회소집 승인의 건 등이 결의됐다.

오는 3월1일 개국을 앞두고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불교텔리비전은 이날 이사회에서 작년의 총자산 1백5십억원중에서 방송장비구입및 시설작업비용으로 지출된 81억원의 결산을 승인하고 현재 4백7십만주(약2백40억원)로 되어있는 수권자본을 1천1백만주(약5백5십억원)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관변경을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조직개편에서는 영상사업부, 제작1부2부를 신설하고 외부감사는 '안근세화 회계법인'을 선임키로 결의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소집계획을 승인했는데, 3월9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는 제6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안건들이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결의되게 된다.

성철스님 영화 내달부터 촬영

성철스님의 일대기 영화 '산은 산이요 물은물이로다'가 한미영화사창립작품으로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간다.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해외시장에도 배급할 계획인 성철스님 일대기 영화는 20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하여 불교영화의 대작으로 완성하게된다.

'산은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의 영화는 현재 중견작가 유지형씨의 시나리오가 탈고된 상태이며 대작인 만큼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영화의 주연배우는 신인공모를 통해 이뤄지는데,영화사측은 "사실감을 살리기 위해 성철스님역에는 불심깊은 30~40대 신인을 기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불교방송 26일 개국잔치

불교방송(사장 김태호)은 3월1일 불교광주방송의 개국을 맞아 오는 26일 광주염주동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축하공연을 개최한다.

2부로 나누어 방송되는 이날 행사는 3월5일 일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1부 개국축하기념법회가 봉행되고 오후2시부터 5시까지는 2부 축하공연이 열리며, 현재 불교방송의 인기프로그램인 "다시듣고 싶은 노래"의 김병조씨가 진행을 맡게 된다.

특히 2부 개국축하쇼에서는 트롯과발라드등 다양한장르의 인기가수들이 선보이는데, 진송남, 장미화, 김흥국, 남진 ,송대관, 물라, DJ.DOC, 이승철, 신효범, 양수경, 조관우, 김종서 ,장혜진씨가 출연할 예정이다.

불자 레슬러 송성일 대전 국립묘지 안장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장기기증을 원했던 송성일 불자의 장례식이 지난2일 삼성의료원에서 국군체육부대장으로 치뤄져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송성일선수는 지난해 10월 히로시마아시안게임에 출전,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100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귀국하여 3일만에 위암진단을 받고 '불심투혼'을 해왔었다.

한편 지난 2일, 가칭 '송성일 정신계승하기모임'의 회장인 양원모 상무레슬링총감독은 "49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송성일사망 1백일째되는 5월9일 송성일동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총화종 종정 이동광스님 추대

4월초 취임식 봉행



◇이동광 스님

총화종은 지난 6일 '종정추대위원회'를 소집,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종정에 부산 원각사 이동광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4월초 종정 취임식을 갖는다.

제12대 종정으로 추대된 이동광스님은 세수 70세로 55년 법어사에서 월해스님을 은사로 득도, 70년에 총화종으로 이종, 종회의원을 비롯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불교 총화종(총무원장 김법은) 제12대 종정에 이동광스님이 추대됐다.

창립 19주년기념 독경대회

천태종 성룡사 청년회

성룡사 청년회(회장 이재우)는 3월1일 창립 19주년 기념법회 및 제3회 전국청년불자 독경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독경대회는 반야심경, 천수경, 예불문등을 불자들이 직접 독경하며 청년불자들의 신심고취와 자질향상을 위한 계기로 마련된다.

진각종 행원 심인당서 결혼상담소 개원준비

강남구 진각종 행원심인당 금강회(회장 지정행)는 전국의 진인행자 및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상담소를 개소한다.

금강회는 불자인연맺기운동 일환으로 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서울 및 지방 심인당을 중심으로 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는등 3월 중순 개원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행원심인당 주교 혜일정사는 "지난해 말부터 금강회를 중심으로 교도들간의 자발적인 의견교환을 토대로 새해대서원불공이 끝난 직후 동참 안내장을 발송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참여대상의 폭이 좁은 만큼 전국 모든 심인당이 적극 동참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회는 행원심인당 내에 결혼상담소 전용사무실을 설치하고 상임 상담원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준비를 하고 있다.

창립2주 기념법회 불교동수회, 대만서

세계불교동수회 한국지회(지회장 석일화)는 3월 24일 창립 2주년을 맞아 대만 만불사에서 기념법회를 갖는다.

이번 법회는 동수회회원 및 각 사암 주지스님 교화사 1백여명이 참석하여 대만 불교 성지순례도 마련된다.

서울시민위한 법회 종단협, 16일 세종홀

서울시민을 위한 기원법회가 오는 16일 오후 6시 세종홀에서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관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기원법회에는 각 종단 총무원장 등 간부진과 서울시내 사찰 주지스님들과 최병렬 서울 시장, 시청 간부들 및 각 구청장등 3백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한국사 전27권

한길사의 한국사는 큰 역사를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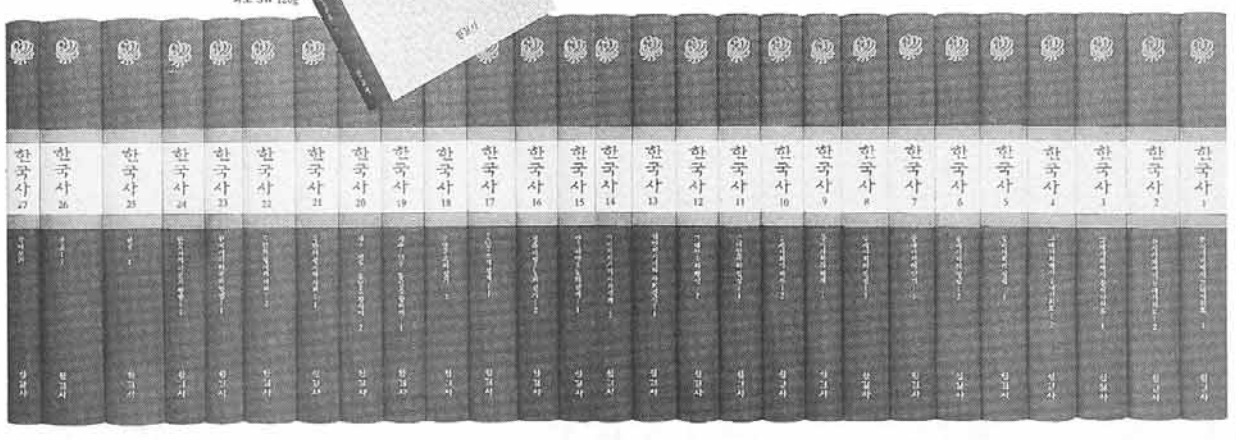
한국사의 참모습을 담아낸 당신 곁의 역사 정보도서관

8년 동안 159명의 역사학자와 50명의 기획·편집진들이 300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만든 한길사의 『한국사』는 민족의 기원부터 1980년대 말까지 민족사의 힘찬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민족사관으로 기획·집필된 한길사의 『한국사』는 기왕의 식민사관 사서들이나 관찬 사서들의 한계를 극복해냈습니다.

◉한국의 찬란한 문화와 사상 한국인의 꿋꿋한 정신을 담아냈다.
◉민족출판문화에 우뚝 솟은 이정표를 세웠다.
◉21세기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담았다.



◀CD 전 24매 포함



한국사 편집위원
강만길 고려대 교수·한국사
김남식 북한문제연구가
김영하 성균관대 교수·한국사
김태영 경희대 교수·한국사
박종기 국민대 교수·한국사
박현채 조선대 교수·경제학
안병직 서울대 교수·한국경제사
정석종 영남대 교수·한국사
정창렬 한양대 교수·한국사
조 광 고려대 교수·한국사
최공식 효성여대 교수·한국사
최정집 고려대 교수·정치학

한국사 책 27권의 내용
제 1권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 -1
제 2권 원시사회에서 고대사회로 -2
제 3권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1
제 4권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2
제 5권 중세사회의 성립-1
제 6권 중세사회의 성립-2
제 7권 중세사회의 발전-1
제 8권 중세사회의 발전-2
제 9권 중세사회의 해체-1
제10권 중세사회의 해체-2
제11권 근대민족의 형성-1
제12권 근대민족의 형성-2
제13권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1
제14권 식민지시기의 사회경제-2
제15권 민족해방운동의 전개-1
제16권 민족해방운동의 전개-2
제17권 분단구조의 정착-1
제18권 분단구조의 정착-2
제19권 자주·민주·통일을 향하여-1
제20권 자주·민주·통일을 향하여-2
제21권 북한의 정치와 사회-1
제22권 북한의 정치와 사회-2
제23권 한국사의 이론과 방법-1
제24권 한국사의 이론과 방법-2
제25권 연표-1
제26권 연표-2
제27권 찾아보기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의 빛나는 성과
「한국사」가 불교계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부처님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가람기획에서는 그간 「한국사」 구입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불자님들의 가슴에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한국사」 판매·보급의 현장에 섰습니다.

책 27권 · CD 24장 ➡ 값 850,000원

▶스님, 불자님들의 구입문의는
(02) 720-5121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구입방법을 안내해 드리며 필요하신 분께 「한국사」 관련 안내자료를 우송하여 드립니다.

가람기획대표 : 이주영 합장

(주) 한길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6번지
강남출판문화센터

전통사찰 신·개축 건축법 적용 안돼

전사법기준 문체부허가로…일반건물과 구분

대법원, 락가사·법왕사 '피소사건' 판결

전통사찰 경내지 안에 있는 건축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는 건축법에 의하지 않고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통사찰이 신행활동을 위한 법당, 요사채등의 신, 증축이 일반 건축법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절차상의 중복을 없애고 문체부 허가만으로 가능하게 된 첫번째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춘천지검이 강원도 락가사와 법왕사 주지를 상대로 낸 건축법위반 상고심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인 피고인들이 각 그 사찰의 경내지 안에 스님과 신도들의 식당 및 주거용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취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통사찰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특수한 건조물로서 그 경내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조화있게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때문에 전통사찰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경내지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일반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전통사찰 등록시에 작성 비치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개개의 건조물뿐 아니라 그 나머지 건조물도 전사법에 의거 지역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강원도 명주군 소재 락가사(주지 청우)와 법왕사(주지 혜운)는 93년 사찰경내의 축대가 무너져 개축하는 과정에서 협소한 도량을 넓히기 위해 각각 요사채와 법당을 신축하자 명주군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철거를 요하는 소송을 냈었다.

불교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부분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한석훈변호사는 "그동안 전통사찰이 법당 중창을 할 때마다 일반 건축법과 전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등 법적 절차가 중복되었던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문체부의 허가만으로 경내지의 현상변경을 할 수있는 길이 열려 법적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8백22개의 전통사찰이 있으며 이들 사찰은 경내지 현상변경때 마다 건축법에 따라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국도보호, 산림법 등을 이유로 승인이 어려워 사찰마다 신행활동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이다.

성남의 전통사찰 만경암(주지 종술)의 경우 3년전 경내에 석조불상을 세웠으나 성남시가 공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하는 계고서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전통사찰이 신행활동에 따른 전각과 시설물 신,증축과정에서 일선 행정기관과 빚어온 마찰을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준엽 기자〉

조계종직영 선본사 총무원 한달간실사

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일명 갓바위)가 지난달 27일부터 약 1개월간의 실사에 들어갔다. 이번 실사에는 조계종 재무국장 종삼스님 호법부 조사과장 운광스님 및 종무원이 총무원에서 직접 파견돼 사찰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수익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조계종 사찰중 수입이 많기로 이름높은 선본사는 관리권 문제를 놓고 (사)마하야나 불교문화원(원장 초우스님)과 은해사간에 알력다툼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대구·경북의 5개 교구본사(불국사 직지사 동화사 고운사 은해사) 주지스님들은 마하야나의 사설사암 회관 건립에 선본사의 수입일체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선본사 주지를 교체해 달라는 진정서를 총무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본사외에 조계사 강화 보문사 등이 조계종 직영사찰로 지정되어 있는데 강화 보문사에도 지난 1월 약 보름간의 실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금사회복지관 개관

부산불교계 최초로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개금사회복지관(관장 정덕)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갖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희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개금사회복지관은 앞으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동안거 해제법어

월하스님〈조계종 중정〉

법상에 오르셔서
불자를 들고 계시다가
참 부처는 입이 없어 설법함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듣는 이는 귀가 없거늘 누가 들으리오.
들어보아라 오늘은 정월 대보름
눈발이 거치면 맑은 봄을 볼 것이라 많은
절에는 천동이요 하늘에는 둥근 달 고요한
밤 깨는 범종소리 마음에는 법석이는 풍류
이 모두가 원통의 경지인데 굳이 따로
나루터를 물을 것인가 일러라 이 무슨 도리인고?
잠시 계시다가 불자를 높이 들어올리시고
필경 이것이 무엇인고?
대중이 말이 없자 불자를 내리시고
말씀 하시기를 마음이 스스로 마음 아니라야
비로소 이 마음이며 눈이 스스로 눈을 보지
않아야 모름지기 이 눈이니라 알겠는가?
차를 드시고
착어하시기를 영축산 고목의 실다운 신은
날카로운 말재주에 있지 않고
뒷짐지고 감자기 뽑아버리면
큰 고래 달을 삼켜 하늘에, 파도가 닿는도다.
합을 하시고 불자를 거두시고 하좌하시다.

전국 불교교양대 새포교사 배출

1천6백명 졸업 5백50명 자격증 받아

95학년도 불교교양대학 졸업식이 한창이다.

전국 50여개 불교대학 가운데 20여개 대학은 이달중으로 일제히 졸업식을 거행하고 1천6백여명의 학인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이들 졸업생가운데 5백50여명은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게 될 전법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금년도 졸업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부산불교대학(학장 이하우)으로 18일 오후 3시 학교 법당에서 2백68명이 졸업식을 거행한다.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도 26일 오전 10시 제6회 불교대학 법사과 졸업식 및 전법사 품수식을 갖는다.

전북불교대는 지난 12일 전법사 자격고시를 실시, 17명의 학인이 법사 자격증을 획득했다.

이외에도 광주불교대,금강불교대, 보현불교대가 2월중으로 졸업식을 거최한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졸업시기와 때를 맞춰 포교사들의 자질향상과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포교사 양성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나 찾기' 연구원 26일 한불청에 개설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는 오는 26일 태고종 참나 선원에서 청소년 문제 전문 상담소인 '참나 찾기 청소년 상담연구원'을 개설한다.

상담 연구원은 청소년들의 신앙상담 진로상담을 비롯 각종상담을 전문상담요원이 직접 상담하여 부설기관으로 '마음의 전화'를 운영하여 신앙생활 및 일반사회생활에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무료로 상담해 줄 계획이다.

또한 청년회는 이날 오전 10시 총무원 설법전에서 신년연합법회 및 만해 한용운선사 정신계승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중앙승가·동국대 24일 졸업식 거행

중앙승가대학과 종립 동국대는 오는 24일 각각 졸업식을 거행한다.

승가대는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1백여명을, 동국대는 이번 하위수여식에서 박사 42명 석사 285명 학사 3천5백여명등 총 4천여명의 졸업생을 각각 배출한다. 또한 종립 초·중·고등학교에서는 13~17일까지 졸업식을 갖는다. 은석국민학교 17일, 금정·해동중학교는 16일에 각각 졸업식을 갖는다.

전국사찰 동안거 해제 금당선원은 2개월 연장

전국의 선원과 사찰은 지난 14일 3개월간의 동안거를 마치고 해제했다.

이번 안거에는 60여개 선원에서 총1천2백여명의 스님이 정진에 임했다.

한편 동화사 금당선원은 결제를 2개월 연장, 4월14일 해제한다.

최형우씨등 무혐의 재야단체 반박성명

불교인권위, 전불련, 실천승가회등 불교 재야단체들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4월 조계사 공권력투입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던 최형우 전 내무장관등 3명이 서울지검 형사3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범승가종단개혁추진위원회 소속스님등 3천명은 지난해 6월 최형우씨외에도 이기태 전 서울경찰청장, 최기문 전 종로경찰서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었다.

16일 종단협 정기총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스님)정기총회가 오는 16일 오후 3시 종단협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정관개정 △94년 업무보고 및 결산 보고 △임원선출 등 5건이다.

기자증 분실

· 성명:김중근
· 주민등록번호:670416-1338710
· 기자증번호:440492
· 분실일:1994. 11. 26
· 분실사유:지하철내에서 분실

단신

8기 행자교육원 개설

조계종 제8기 행자교육원이 오는 3월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 양산 통도사에서 개설된다.

지난해 9월 10일 이전 입산해 전국 각 사암에서 기초행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승려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자교육은 교육법 제55조 3항및 승니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이로서 교육원 입방심사에 합격한 자만이 교육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15일~25일

접수 각 교구본사·교육원 (02)732-4923~4

특별정진법회 봉행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지난달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선원 법당에서 새해맞이 한마음 특별정진법회(촛불제)를 봉행했다.

각자 마음의 촛불을 켜고 조상들의 왕생극락과 자손들의 번영을 발원하기 위해 마련된 촛불제는 신도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단불공, 영가시식, 촛불제로 이어졌다.

어린이 7명 의료지원

한국불교사회봉사회(회장 문필녀)는 지난 6일 혜화동 원효정사에서 심장병,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 7명에게 총 1천만원의 의료지원비를 전달했다.

이번 의료비지원은 지난해 10월 개최했던 심장병, 백혈병 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의 수익금 2차분이 전달된 것으로 김기창 어린이를 비롯 7명의 어린생명들의 건강을 되찾는데 쓰여지게 된다.

목탁소리

정성운 〈취재2부 기자〉

조계종이 드디어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징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해 4.10 승려대회, 4.13 서의현 전총무원장 사퇴발표, 11.21 총두원장 선거 등의 고비 때마다 큰 변화의 기류를 감지했을 것이다. 가깝게는 지난 1월 9일 월주 총무원장의 종무계획 발표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과정이 권화임에는 틀림없지만 조계종의 지난 역사를 보아온 사람들의 내심은 기대반 의구심반이었음도 숨길 수 없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선언적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전히 미래형이며 도면에 그려진 청사진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하나의 주목되는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본사주지연수회. 오는 20일부터 3일 동안 직지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얼핏 보면 자금까지도 여러 차례 있었던 무슨 연수회니 재교육이니 하는 것들과 별로 달라 보이는 것은 없다. 다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한국사회 속에서의 종교현황' '지도자로서의 자기역할' '지자제와 불교의 대처방안' '통일전망과 불교계의 대응' 등 굵직하고 중요한 현안을 숙고하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연수회로서 1천6백년 묵은 고목에 새싹이 움트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월주 총무원장 스스로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연수회에 앞장서서 임하겠다는 다짐이다. 아울러 본사주지를 비롯한 중진스님들에게도 직접 참석하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그러나 기대는 여전히 이르다. 연수회에 어떻게 임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수회 소식은 이미 불교계신문과 불교방송을 통해 많은 불자들에게 알려졌다. 소식을 들은 불자들은 한결같이 잘한 일이라며 반겼다. 또 교계의 매체들은 연수회 소식을 앞다퉈 불자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이번 연수회가 열리는 직지사에 불자들의 눈과 귀가 몰려 있다.

국보41호 용두사지철당간

균열·부식 "심각"

청주시는 8일 국보 41호인 용두사지 철당간(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48의 19)의 균열, 부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보존대책을 마련키로했다. 시에 따르면 9일 문화재관리국 산하 문화재연구소에 용두사지 철당간에 대한 정밀 점검을 의뢰,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존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20개의 철통으로 이뤄진 용두사지 철당간이 풍화작용 등으로 일부 철통에 심한 균열이 생기거나 부식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당간과 지주를 연결하는 장치와 철통 사이의 틈이 크게 벌어지는 등 원형이 손상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두사지 철당간은 사찰의 각종 행사때 불기를 걸기 위해 고려 광종 13년(9백62년)에 제작된 높이 60cm, 직경 43cm의 철통 20개(전체 높이 12.7m)를 조립한 것으로 제작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당간기가 철통에 양각돼 있으며 지난 62년 국보 41호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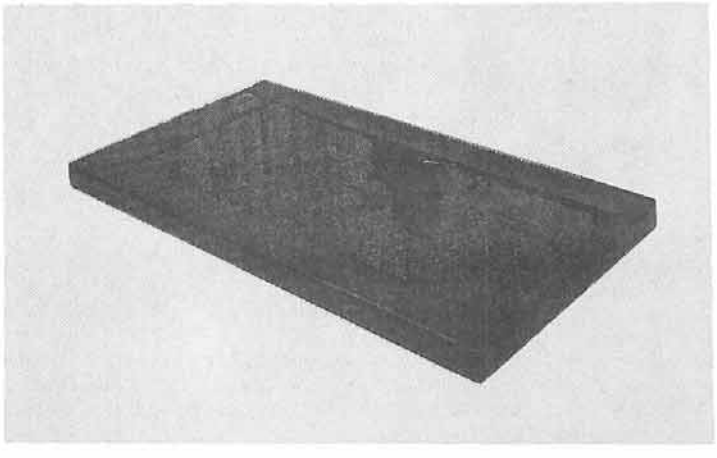
우리 시대 최고의 수맥방지 온돌침대

병이 있는 사람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치유되고 허약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태어난다

돌 자연석
인간의 몸은 소우주
자연의 기를 원한다

전기용품 Q마크 획득
품질보증
EMI





전국에서 난치병의 개선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로 상담하여 주세요

왜 많은 분들이 수맥방지 온돌침대의 효능에 만족하실까요?

■전화 주시면 계약금만으로 바로 설치해드립니다.
고객감사 현금가 10개월 할부 단행!!

생산자 — 총판 — 대리점 — 판매점 — 소비자
•기존 사용하시는 침대를 수맥방지 돌침대로 개조해 드립니다.

■현대인의 질병 그 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 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라듐방사체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맥방지 돌침대는 이러한 독소와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수면과 건강을 지켜주는 돌찜질기입니다.

■온돌침대는 확실한 효과로 선택하십시오!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통증의 경감 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교통사고 후유증 등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불면증·비만·미용 등에 효과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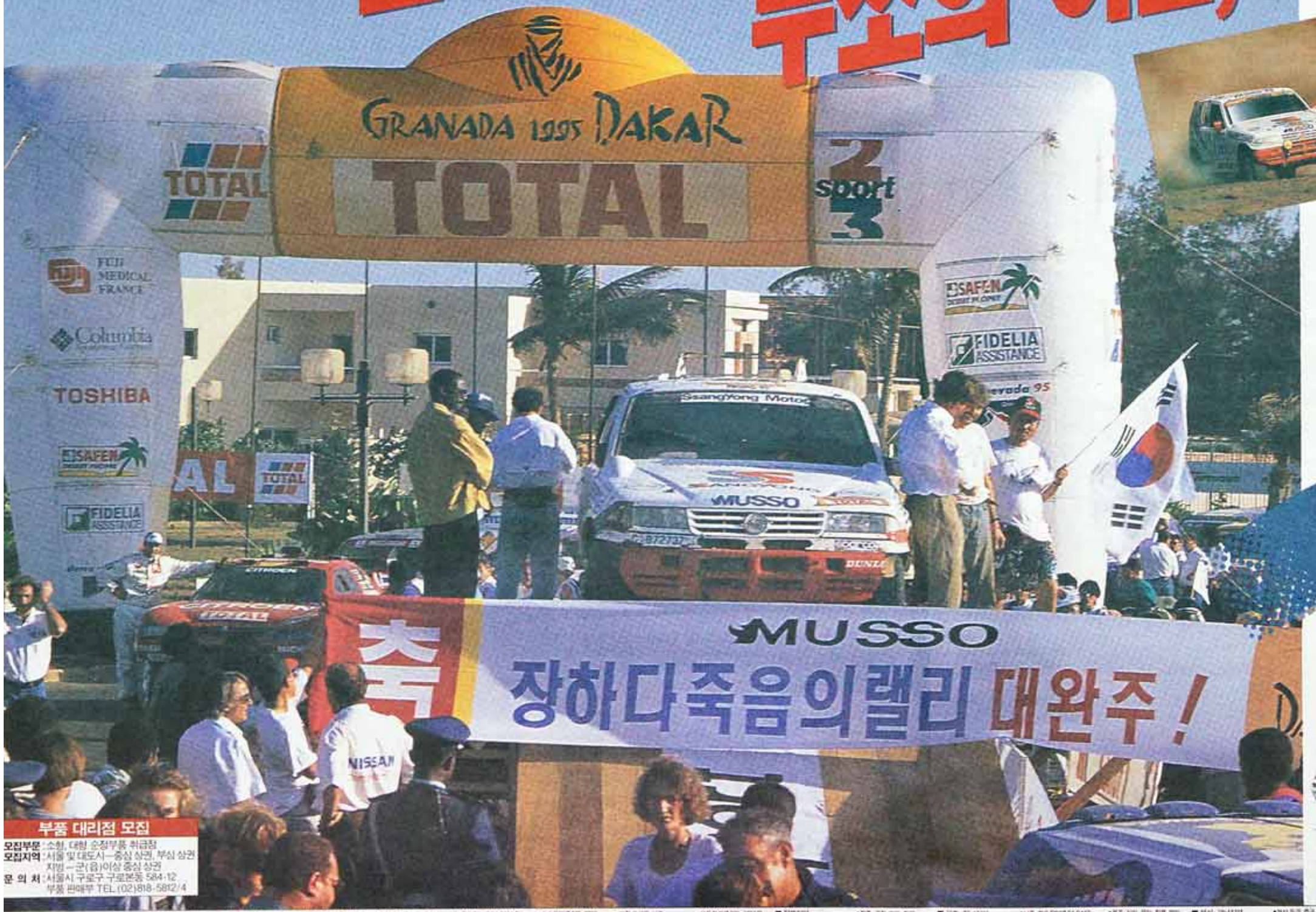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건강상담실 운영

4X4
40년 전통의
WD 전문메이커

※KBS-2TV 생방송/ TV정보센타 3부(07:00~07:30)에서
매일 다카르랠리 특집방송중

파라오의 영웅, 무쏘! 다카르랠리 당당 7위!

또다시 세계에 떨쳤다! 무쏘의 이름, 무쏘의 성능!



무쏘, '94 파라오랠리 4WD 부문
한국최초 당당 우승!
코란도웨미리, '94 파리-다카르랠리
한국최초 공식 완주 및 8위!
쌍용자동차가 무쏘로 또한번
한국자동차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무쏘/ 세계 30개국 유명자동차 247대가 도전,
157대가 탈락한 죽음의 랠리를 제압했다!**

미친듯 불어대는 사하라의 모래폭풍을 뚫고 달린 경장 10,109km!
일본의 미쓰비시 18대, 도요다 16대, 닛산 11대, 프랑스의 씨트로엥 4대 등
세계의 자동차 명문들도 물량작전을 폈으나 총 출전 차량중 64%가
탈락한 죽음의 랠리!
무쏘가 '94년 '파라오랠리' 4WD 세계 제패에 이어 '95 다카르랠리에
출전하여, T3부문 7위(종합 8위) 및 한국최초 2대 공식 완주라는
성과로 또한번 그 명성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최고권위의 '다카르랠리' 2년 연속 공식완주
및 세계 자동차 랠리 3회연속 대기록 수립이라는 놀라운 신화를
창조한 쌍용자동차!
지구촌 최악의 난코스에서 뿜어내는 놀라운 성능으로 세계언론의
각광과 함께 자동차딜러들의 주문이 증가함으로써, 무쏘의 우수성과
쌍용자동차의 기술력을 세계속에 드높였습니다.

세계 자동차랠리 3회연속 대기록 수립 기념
감사大축제

랠리의 쾌거처럼 반가운 빅뉴스!
그 놀라운 성능을 당신의 것으로!



축제1 차량가격 1% 할인
(일반 4WD 보유자가 쌍용 무쏘를 구입하실 경우)

축제2 차량가격 2% 할인
(쌍용 4WD 보유자가 쌍용 4WD를 구입하실 경우)

축제3 최장 60개월 할부판매
(차량 가격의 최저 15% 납입으로 차량 인수 가능)

축제4 최장 15개월 무이자 분할판매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

축제5 다카르랠리 참가 모형카 증정
(가까운 쌍용자동차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해 주시면 예쁜 모형카를 드립니다)

■기간 : '95년 2월 8일(수) ~ 2월 28일(화) (출고 기준)

MUSSO

부품 대리점 모집
모집부문 : 소형, 대형 순정부품 취급점
모집지역 : 서울 및 대도시-중심 상권, 부심 상권
지방-군(읍)이상 중심 상권
문 의 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584-12
부품 판매부 TEL (02)818-5812/4

구입문의